

Be Healthy, Be Happy

# 인하대병원

2018 0506 | Vol.129







밤 12시 힘겨운 이브닝 일과를 끝내고 퇴근을 위해 차에 시동을 켜다.  
어두운 하늘, 은은한 달빛,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슬픈 음악  
갑자기 가슴이 울컥한다. 봄바람이 차 창문 너머로 내 이마를 스쳐간다.  
봄을 느낄 새도 없이 3월이 지나갔다.  
쓸쓸하다.

집 근처 골목길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벚꽃들이 눈에 들어온다.  
아! 봄이구나.

3월의 끝자락에서야 봄을 느낀다.  
새벽 퇴근길 벚꽃 사이로 달빛들이 달려든다.

벚꽃이 지기 전 아우성친다.  
봄을 느끼라고 힘겨운 하루는 잊고 찾아온 봄을 느끼라고  
가슴이 울컥한다.  
벚꽃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고마움이 밀려온다.

메마른 입상 속 무언가 느낄 새도 없이 지나가 버릴 수 있었던 2018년의 봄.  
퇴근길 속 벚꽃 나들이는 이렇게 나에게 봄을 주었다.

간호사 여러분 메마른 입상 속에서 당신의 정서가 같이 메말라 가는 건 아닌지...  
잠시나마 여러분의 가슴에 촉촉한 수분을 주고자 시를 써 봅니다.  
박지숙 간호사 | 서15병동

## Contents

# 인하대병원

Be Healthy, Be Happy

05 + 06

2018 May + Jun Vol.129



06



26



34

04	개원 기념사	“그대의 마음속에 식지 않은 열과 성의를 가져라”
06	Medical Focus	가정의 달 특집   소아청소년과
08	Hello 닥터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10인(人)
10	성조속증	가슴 몽우리 살피고, 고환의 크기부터 체크하라!
12	알레르기비염	나이 어릴수록 유사 질환과의 구별 위해 면역학적 검사 필요
14	이른둥이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 이른둥이
16	소아 두통	6세 어린이 두통, 피병 아닐 수도
18	어린이 약 먹이기	약보다 더 중요한 '효과 뽐뽐', 복용법
20	어린이의 실신	아이가 기절했어요!
21	소아 혈액질환	과거 불치병, 지금은 4명 중 3명 이상이 완치!
22	Health Touch	산후, 엄마의 건강 지키기 - 산후요통 & 산후 우울증
24		심장재동기화 치료
26	Special People	2108 평창 동계올림픽 SBS 스포츠 해설위원 / 제갈 성렬
28	INHA Post	영화 매트릭스처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30	INHA Focus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32		2018 인하대병원 외과 장문합술 skill lab
34	인하심포	‘고객을 부모님처럼 섬겨요’
36	특독 약물상담	대상포진 백신 접종
37	병원 탐방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홍은희 원장
38	병원소식	인하대병원 소식
39	Info Desk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 건강교실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인하대병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하대병원보 2018년 5·6월호(통권 제129호) 발행일 2018년 6월 1일 발행인 김명모 발행처 인하대병원 홍보팀  
기획&편집 홍보팀 디자인 테크포스 인쇄 금강프린텍 등록번호 인천마01031  
인하대병원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신흥로 3가 7-206) 전화 (032)890-2114 팩스 (032)890-2998

※이 책에 게재된 글과 이미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 “그대의 마음속에 식지 않은 열과 성의를 가져라”



사랑하는 인하대병원 가족 여러분

가정의 달인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기념일이 많아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합니다. 어느 때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 많이 쌓으시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개원 22주년 기념일을 맞아 수상하신 장기근속 직원, 공로 및 모범 직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온 많은 시간과 병원의 발전상을 돌아보면, 특히 장기근속 수상자에게는 오늘의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직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인하대병원 또한 환자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진료, 수술, 투약, 시설공사 등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다시 한번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실천하는 인하대병원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직원 여러분

우리 병원은 지난 몇 년간 새로운 성장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 하반기부터 차세대 의료정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재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진료 및 질 지표와 연구 등의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실 환경 개선공사, 외래 재배치공사, 에스컬레이터 증축공사, 고객 주차장 확대 등을 통하여 환자 경험 및 고객 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그대의 마음속에 식지 않은 열과 성의를 가져라. 당신은 드디어 일생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것치고 열정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1996년 개원 이래 22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성장을 위한 발판이라 생각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과 성의로 병원 발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순간이 모여 역사를 만들듯 교직원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우리 병원의 미래와 역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의료원장 김영모



아프지마! 괜찮아!  
우리가, 네 곁을 지켜줄게!

태어나자마자 최전선의 삶에 서야 하는 신생아를 치료하는 의사,  
희귀질환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낯선 아이의 평생 주치의가 되어야 하는 의사,  
내분비 장애로 아이 얼굴에 어른 몸으로 커가는 아이를 지켜주는 의사,  
다양한 분야에서 치료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10인은 사랑과 정성으로 그들 곁에 서 있다.  
'매일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매일 웃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애뜻함과 간절함으로 말이다.

- 기획\_최지선 / 홍보팀 진행·정리\_이정희 에디터 사진\_송인혁 실장 / 다뷰스튜디오





**김동현 교수 / 소아감염전문가**  
**'안전과 근거'를 기반으로 소아 감염 치단 진료!**  
 아이의 질환뿐 아니라 마음 상태까지 빠르게 읽어내고 가장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최선을 다한다.

**전용훈 교수 / 신생아**  
**아장아장 걸어와 깜찍하게 인사하면 고생은 다 잊고, 그 보람으로 또다시 힘든 이 일을 할 용기가 생긴다.**  
 작디작은 아기에게 가관 삼관하고, 인공환기 치료를 하고, 실 같은 혈관에 주사하여 인공영양을 실시하고... 여러 번의 고비를 넘고 신생아중환자실을 퇴원할 때, 과연 이 아기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지 늘 마음 한켠이 아려온다.

**양아람 교수 / 소아 내분비·희귀유전질환**  
**고통받는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을 위한 평생의 주치의**  
 희귀 난치성 환자와 보호자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노력하며, 일회성 만남이 아닌 평생의 주치의가 되어 지속적인 추적치료를 하는 것이 목표이다. 어려운 길이지만, 늘 공부하고 정진하며 공감하는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다.

**김순기 교수 / 소아혈액종양**  
**의료행위는 사람 냄새 나는 의술로!**  
 의사로서 그의 소명은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 '편'에서 끝까지 동행하며 웃음을 주고 싶은 것이다.

**이지은 교수 / 당뇨내분비·희귀질환**  
**진정한 의술은 세상을 건강하게 바꾼다!!**  
 웃는 아이들을 보면 나도 웃고, 아이들이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미소가 아름다운 의사이다. 아픈 아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내가 의사로 살아가는 이유이고 소명이다.

**권영세 교수 / 소아신경**  
**밝은 미소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난치성 뇌전증으로 고생하면서도 항상 긍정적이며 환한 웃음을 잃지 않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

Hello 닥터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10인



**신은정 교수 / 소아심장**  
**내가 느낀 일상의 기쁨,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어**  
 심장소리가 이상하면 아이와 보호자는 놀랄 수밖에 없다.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돕고, 아이들이 웃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임대현 교수 / 소아알레르기호흡기**  
**배운 대로! 연구한 대로! 진료하고 싶은 소망**  
 지도교수님인 '손병관 교수님'이 좋아서, 그분 밑에서 배우고 싶어 소아과를 지원 의사이면서 교수인 그는 '진료, 연구, 교육'에 집중하며 배운 대로, 연구한 대로, 가르친 대로 진료하고 싶은 정직한 소망을 전한다.

**김정희 교수 / 소아 알레르기**  
**함께 할수록 긍정의 에너지가 상승하는 공동체, 우리 과!**  
 위험에 취약한 신생아에서 건강한 성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최선의 도움을 주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파이팅!~

**이주영 교수 / 신생아**  
**10분 이내 출동하는 '나는 신생아 의사입니다'**  
 성인의 생존을 위한 노력만큼 신생아를 살리는 데 대한 노력은 많이 아쉽다. 그래서 아가들이 조금이라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의사가 된 이유이기도 하다. 얼마 전,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주고 의료진을 끝까지 믿고 웃음으로 따라준 정윤이 엄마와 아빠가 초등학교 입학했다는 연락을 주셨다. 실오라기 같은 정맥을 찾아 주사를 잡으며 지내온, 아가들이 최우선인 내 삶이 '보람'이라는 단어로 꽉 차는 벽참을 느낀다.

'만남은 또 다른 차' 'Meet'



성조숙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가슴 몽우리 살피고, 고환의 크기부터 체크하라!

성조숙증이란 여아 만 8세 이하, 남아 만 9세 이하에 사춘기 징후가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조숙증은 키 성장에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사춘기를 겪으며 아이가 자신의 신체를 받아들이지 못해 심리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어 문제가 크게 됩니다.

글\_ 양아람 교수 / 소아청소년과



유방이 나오고 고환이 커지는 사춘기

사춘기는 새로이 시작되는 독립된 시기가 아니라 소아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여아에서는 시상하부-뇌하수체 활성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며, 이후 난소에서 여성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유방이 나오고, 음모발달, 빠른 키 성장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남아에서는 시상하부·뇌하수체 활성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며, 이후 고환이 커지면서(고환용적  $\geq 4ml$ ) 남성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음모발달, 빠른 키 성장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아 만 8세, 남아 만 9세 이하에 사춘기 징후가 시작되면 '성조숙증'

성조숙증이란 여아 만 8세 이하, 남아 만 9세 이하에 사춘기 징후가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조숙증이 나타나면 급성장기를 미리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키가 빨리 자라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성장판이 빨리 닫히면서 최종 성인키가 작아지게 됩니다.

성조숙증은 키 성장에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사춘기를 겪으며 아이가 자신의 신체를 받아들이지 못해 심리적인 고통도 오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됩니다. 특히 여아의 경우 성인이 된 후 조기 폐경, 유방암, 자궁암 등의 발생 위험도 높을 수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성조숙증 환자 수가 지난 5년간 3만여 명이 증가하였으며, 소아 인구 대비 증가율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증가를 높인 성조숙증의 원인

이러한 원인으로 첫째,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소아비만 증가가 있습니다. 비만은 성조숙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소아에서 식이조절, 운동을 통한 적절한 키 대비 체중 유지가 성조숙증 예방에 중요합니다.

둘째, TV, 인터넷 등을 통한 성적 자극에 쉽게 노출되어 발생하고 또한 시청각적 자극이 뇌신경에 영향을 주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호르몬 증가도 몸속 호르몬을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와 달리 키, 몸무게 등 자녀의 삶의 질, 성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부모의 관심 증가 및 사회적 영향으로 이상 징후 발견 시점과 조기대응이 빨라지고, 병원 내원 빈도가 늘고 있는 점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보험 적용되는 성조숙증 기준

국내 보험 인정 기준은 여아는 신체적 사춘기 징후가 보이며,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자극 검사(GnRH 자극 검사)에서 황체호르몬의 최고치가 5 IU/L 이상을 보이고, 성장판 검사에서 골연령이 역연령보다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소견을 모두 보일 때, 진단 가능하며, 첫 성억제주사 치료가 여아는 만 9세 이전, 남아는 만 10세 이전에 이뤄져야만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계란, 콩, 두부, 우유 등 이러한 음식과 성조숙증과의 연관성은 불분명하며, 특정 음식만을 주식으로 고집하지 않는 한, 골고루 먹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기에 엄격히 제한할 것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성억제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은 단기적으로 질 출혈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대개 일시적이며, 주사 부위와 관련된 통증, 발적 등 국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암제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유방암 혹은 전립선암에서 사용되는 성호르몬 억제제와 용법, 용량이 다르고 항암제처럼 독성이 강한 약이 아니며, 암을 유발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성조숙증의 치료는 4주에 한 번 근육 혹은 피하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며, 골 연령 및 성장속도를 확인해 가며, 치료를 지속하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치료 유지 중인 환자의 일부는 3개월형 제제로 치료하게 되며 이를 통해 비용, 시간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성조숙증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통해, 진단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치료하여 성장과 발달이 잘 이뤄질 수 있어야 하며, 소아내분비 전문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아청소년과 병동 휴게실



소아청소년과 병동 휴게실은 하늘, 산, 구름 등 푸른 자연과 햇살을 테마로 건강과 희망을 찾아주고자 하는 의료진의 소중한 마음과도 같다. 또 다른 치유의 공간이 되어 아이들의 순수한 꿈이 간직되기를...



알레르기비염

# 나이 어릴수록 유사 질환과의 구별위해 면역학적인 검사 필요

알레르기질환은 환경요인과 유전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부모 중 한쪽만 알레르기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약 50%, 부모 모두 알레르기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약 75%에서 자녀에게도 알레르기질환이 발생합니다.

글\_ 김정희 교수 / 소아청소년과



### 소아 알레르기비염 지속적 증가

알레르기는 정상인은 반응이 없거나 가벼운 반응을 유발하는 화학·물리 자극에 대해 정상이 아닌 과도한 반응으로 인한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국내 소아 알레르기비염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대기오염의 증가, 식습관과 생활환경의 변화 등 환경 요인이 알레르기비염 발생 증가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알레르기비염은 유병률이 증가할 뿐 아니라 발병연령이 어려워지고 있고 소아의 일상생활, 수면의 질, 학업수행능력,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약 50%에서 만성부비동염, 약 25%에서는 아데노이드비대증 동반

2007년부터 환경부에서는 환경과 알레르기질환과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알레르기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였으며 인하대병원은 2008년 8월, 알레르기비염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임대현)로 지정을 받아 여러 연구와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성비염 증상으로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를 내원한 소아의 증상을 분석한 결과, 알레르기비염의 주요 증상인 재채기, 콧물, 코막힘, 코 가려움 중에서 재채기와 코 가려움 증상은 알레르기비염의 가능성이 보다 높은 증상인 반면, 콧물과 코막힘의 증상은 알레르기비염 이외의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알레르기비염 환자의 약 50%에서 만성부비동염이, 약 25%에서는 아데노이드비대증이 동반되어 있어, 알레르기비염 환자에서는 이러한 동반 질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나이 어릴수록 유사질환 구별 위해 면역학적인 검사가 필요

센터의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이상에서 설문지 증상만으로 조사한 알레르기비염 유병률은 설문지 증상조사와 피부 시험조사를 함께 시행한 유병률보다 약 2배 많았습니다. 이는 알레르기비염 증상이 있더라도 실제로 알레르기비염일 가능성은 유치원생의 경우에는 약 1/4, 중·고등생의 경우에는 약 1/2로, 증상만으로는 알레르기비염을 진단하기 어렵고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알레르기비염과 증상이 유사한 여러 질환들과의 구별이 쉽지 않아 알레르기비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면역학적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 알레르기비염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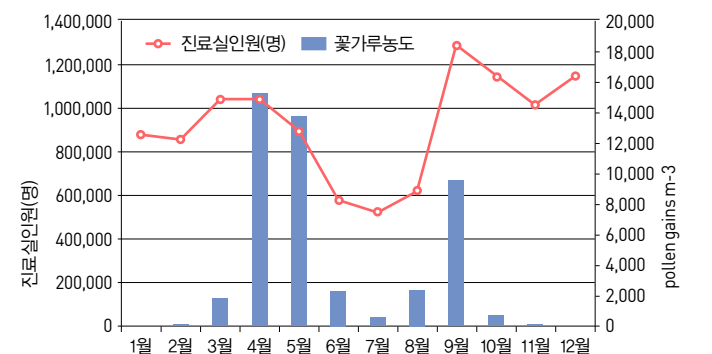
알레르기비염은 크게 집먼지진드기, 털이 있는 동물, 곰팡이 등의 실내 원인과 꽃가루 등의 실외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센터에서는 알레르기질환의 실외 요인인 꽃가루의 특성을 조사하고자 6곳(서울 안암동과 대림동, 인천 갈산동과 연수동, 수원 매항동, 세종도담동)에 공중화분 측정망을 구축하고 비산시기와 농도를 분석하여 센터 홈페이지(<http://www.allergycenter.go.kr>)에 그 결과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도권 지역의 꽃가루 농도와 2015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알레르기 비염 환자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15년도 수도권 지역 꽃가루 농도는 4월과 5월에 절정을 보인 후 점차 농도가 낮아졌으며, 8월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고 9월에 연중 세 번째로 높은 농도를 보였습니다(그림). 꽃가루의 농도가 높아질 때 알레르기비염 진료 환자수도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봄철에는 자작나무, 오리나무, 참나무, 버드나무 등이, 가을철에는 환삼덩굴, 쑥 등이 꽃가루 알레르기의 원인이 됨을 학교 유병률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 병원의 노력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는 임대현 교수(센터장, 소아청소년과), 김정희 교수(부센터장, 소아청소년과), 장해지 사무국장, 김은혜 연구원, 소혜주 연구원, 백송이 간호사, 정예나 사무원과 함께 알레르기질환 발병에 관여하는 환경, 유전 요인 간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알레르기질환 저감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림 알레르기비염 월별 진료실인원과 꽃가루 농도



※ 조사 지역: 서울(성북구, 영등포구), 인천(부평구, 연수구), 수원(팔달구)

참고 용어 | 유병률: 전체 인구 중 특정한 장애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비산(飛散): 날아서 흩어짐.





이른둥이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 이른둥이

임신 기간 37주 미만 또는 최종 월경일로부터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미숙아(preterm infant) 또는 조산아(preterm infant)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출생 시 몸무게가 2.5k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low birth weight infant)를 포함해 미숙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숙아의 새 한글 이름이 '이른둥이'이며,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_ 이주영 교수 / 소아청소년과

이른둥이란 무엇이고 국내외 현황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통계청 출생 통계에 따르면 출생한 신생아 수가 1980년에 77만 명에서 2015년 43.8만명으로 35년간 약 43%나 감소하여 심각한 저출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그림 1). 그러나 이에 비해 이른둥이의 수는 2005년에 2만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4.8%였던 것에 비해 2015년에는 10년만에 3만명, 6.9%로 그 비율이 1.5배로 늘어났습니다(그림 2). 이와 같은 이른둥이의 증가는 전체적인 저출산에 따른 산모의 노령화 및 불임의 증가, 또 이에 따른 인공임신술의 증가에 따른 조산, 다태아의 증가가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체중 출생아 및 이른둥이의 출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둥이는 어떤 점이 만삭아보다 불리할까요?

태이는 임신기간 동안 엄마의 자궁 속에서 적절한 환경과 보호를 받고 필요한 영양을 공급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른둥이는 임신후기에 이러한 공급을 받지 못한 채 태어나게 되어 만삭아보다

여러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체온조절 기능이 덜 발달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큰 체표면적, 피하지방 부족 및 영양부족 등으로 인해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늑골이 연하고 호흡을 담당하는 근육의 힘이 약해 호흡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는 폐포를 잘 퍼지도록 해주는 표면활성제의 부족으로 '신생아 호흡곤란'이라는 이른둥이의 대표적 호흡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 기계호흡보조와 산소 및 표면활성제 투여가 필요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는 호흡을 거의 하지 않는 나이이므로 무호흡도 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출생 후 막혀야 되는 혈관인 동맥관이 늦게 닫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뇌실 내 출혈'은 미숙아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로 이 또한 재태 기간과 출생 체중이 적을수록 그 빈도가 증가합니다.

경구 수유의 과정 또한 강하게 빠는 힘과 수유에 관계되는 여러 입안 근육들의 조화와 반사작용이 완성되는 임신 나이 약 34주가 지

그림 1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수(통계청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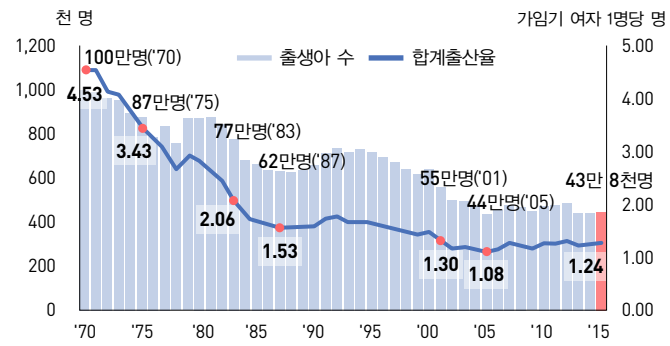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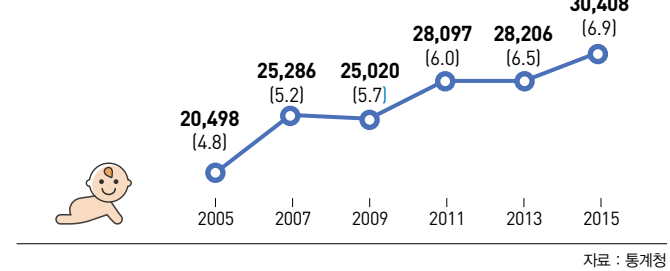


그림 2 신생아 중 이른둥이 출생 추이(통계청 2015), 명(%)



자료 : 통계청

나야 가능하므로, 그때까지는 튜브를 통한 수유가 필요하며 종종 복부팽만을 보이고 수유진행이 힘든 경우가 있어 서서히 진행해야 합니다. 부족한 양은 수액이나 정맥영양을 통해 영양 보충을 하게 됩니다. 일부 이른둥이에서는 장점막 및 전층의 괴사를 보이는 '괴사성 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수유 진행 및 소화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금식 및 항생제 치료, 나아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망막혈관도 미숙하여 '미숙아 망막증'이 발생하지 않는지 정기적인 망막검사가 필요하고 청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높아 청력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서는 어떤 보살핌을 받나요?

이른둥이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게 되면, 부모들은 자신들과 격리되어 여러 기계와 모니터에 둘러싸인 아기 모습에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이른둥이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 신체기관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기초적인 호흡부터 체온 유지, 영양분 섭취를 스스로 하는 힘 등 모든 신체 기능이 매우 약합니다. 또한, 선천적, 후천적 질병으로 전문가의 24시간 집중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른둥이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 바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입니다. 이른둥이는 이곳에서 인공의 시간을 보내며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내에서는 아기들의 혈압이나 맥박, 호흡, 산소 포화도 등 생체활력을 24시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주사를 통해 영양을 공급하는 동시에 튜브를 통해 음식을 투여하게 되고, 호흡곤란이나 무호흡이 있을 때는 기계 환기 치료나 산소공급을 하며, 체온조절을 위해 인큐베이터 내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른둥이는 스스로 체온유지가 가능한 임신 34~35주나 체중 1.8~2.0kg 내외까지 인큐베이터 내에서 자라게 되는데, 인큐베이터는 체온조절과 피부의 미성숙으로 수분 손실이 많은 미숙아들을 위해 따뜻한 대기환경과 표준 습도를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빈혈, 전해질, 호르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시행하며, 여러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엑스레이, 심장초음파, 뇌초음파, 복부초음파 등 영상 검사를 시행합니다. 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협진을 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신생아전문의 혼자 힘으로 앞에 언급한 질병을 모두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소아심장, 소아신경, 소아내분비, 소아영양학, 소아외과, 신생아 전문 간호팀 등의 통합적인 진료와 세심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럼 언제 퇴원할 수 있고 퇴원 후 만삭아와 다른 점이 있나요?

다른 의학적 문제가 없는 경우 보통 체중이 2kg 이상 증가하고 스스로 체온조절이 가능하며 충분한 수유로 하루 15~20g 이상의 체중 증가가 꾸준할 때 보호자가 아기에 대해 적응하는 시간을 가진 뒤 퇴원하게 됩니다.

퇴원 전 망막검사, 청각검사, 대사이상 검사, 뇌초음파 검사나 필요한 경우 뇌MRI를 시행하여 퇴원 이후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모든 아기들에게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른둥이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대개 생후 1세~2세 사이에 따라잡기 성장으로 만삭아로 출생한 아기와 같은 정도의 성장을 보이나 이에 못 미치는 성장부진 시 원인을 찾아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른둥이의 발달과정은 교정연령, 즉 분만에정일부터의 나이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 심한 질병을 겪은 일부의 이른둥이는 정신지체, 자폐증, 뇌성마비 등의 정신적·신경학적 발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외에 사회적·행동 발달 장애, 언어 발달 장애, 시력, 청력 등의 장애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정기적인 외래 방문을 통해 면밀한 추적 관찰과 의심이 되는 경우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정신과, 소아안과, 소아이비인후과 등 타과의료진과의 협진을 통해 시기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아 두통

## 6세 어린이 두통, 꺾병 아닐 수도

소아 및 청소년기에 가장 흔한 질환 중의 하나가 두통이다.

최근 사회생활이 서구화 되고 있고, 학업에 따른 스트레스 및 청소년기의 수면부족과 불규칙한 수면,

미세먼지 등 안 좋은 환경 노출에 의하여 두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글\_ 권영세 교수 / 소아청소년과

급성기 두통은 열, 감기, 인플루엔자 감염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대부분 원인이 없어지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뇌수막염 또는 뇌출혈 등 위험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세부터 18세까지 소아·청소년의 20%는 1년 이내 두통이 반복되고, 중학생 시기에서는 3개월 이상 동안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이 반복되는 만성 두통이 1.5%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의 두통은 학교생활에 심한 지장을 주고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6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두통이 저명하게 나타나지 않아 진행되는 것을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두통의 종류와 나타나는 증상

두통은 편두통, 긴장형 두통, 군발 두통 같은 원발 두통과 기저 질환에 의하여 발생하는 2차 두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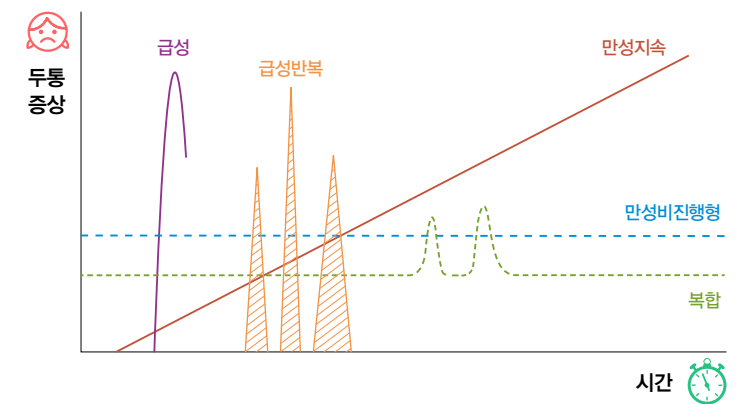
자세한 병력과 신경학적 진찰을 통해 2차 두통 중 응급 치료가 필요한 두통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감별은 두통의 위치보다 심한정도 및 아픈 기간을 구분하여 두통 질환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림).

급성기 두통은 열, 감기, 인플루엔자 감염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대부분 간단히 원인이 없어지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뇌수막염 또는 뇌출혈 등 위험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급성 반복성 두통에는 편두통이나 군발 두통 등이 있다. 만성 비진행성 두통에는 긴장성 두통이 해당되며, 우울증 또는 학교공포증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 또는 약물 과복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만성 진행성 두통은 가장 안 좋은 형태이며, 주로 뇌종양, 뇌수종, 뇌혈관 기형과 같은 두 개 내 병변 또는 뇌 거짓종양(idiopathic intracranial hypertension) 등이 해당 된다.

### 뇌MRI 등 영상검사가 필요한 두통

뇌 MRI를 포함한 영상검사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두통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서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

그림 진행 경과에 따른 두통의 형태



하지만, 1개월 이내 급격하게 발생하거나, 가족 중에 편두통을 포함한 일차두통이 없는 경우, 신경학적 이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경련이 동반되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한 경우, 두통으로 인하여 수면 중에 깨거나 또는 깨어나자마자 발생하는 경우, 후두부 두통 및 6세 이하 소아에서는 영상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6세 이하 소아는 두통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두통의 표현력이 떨어지므로 6세 이하에서 두통이 발생하면 반드시 소아신경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치료 방법

치료는 비약물 요법과 약물 요법이 있다. 비약물 요법으로는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침대에서 밤늦게까지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하는 것은 수면이 불규칙하게 되거나 수면 부족으로 두통이 유발되거나 심해질 수 있다. TV 있는 거실에서 취침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음식 중에는 초콜릿, 카페인 함유 음료, 견과류, 오래된 치즈, MSG 등을 섭취하는 것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다.

급성기에는 일차약으로 acetaminophen(아세트아미노펜), ibuprofen(아이부프로펜), naproxen(나프록센) 등을 두통이 있을 때만 정량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대한 하루에 3회 이하, 일주일에 3일 이하 정도로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심한 급성기에는 triptan(트립탄 계통 약물), metoclopramide(맥페란)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두통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학교에 결석할 정도로 심한 두통이 반복되면 예방적 치료가 필요하다.

Topiramate(토피라메이트), propranolol(프로프라놀롤), valproic acid(발프로산), amitriptyline(아미트리프틸린), cyproheptadine(사이프로헵타딘), flunarizine(플루나리진) 등이 예방약제로 사용 된다.





### 어린이 약 먹이기

## 약보다 더 중요한 '효과 뽀뽀', 복용법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몸집만 작은 것이 아니라 발달 상태에서 약물 대사에 이르기까지 어른과 다른 상태란 뜻입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의약품의 경우 어린이에게 맞는 용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어른 용량에 비춰 유추하고 어림짐작으로 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글\_ 김동현 교수 / 소아청소년과

#### 더도 덜도 말고, 정량 지키는 게 중요

아이가 더 아픈 것 같다고 병원에서 처방된 양 이상의 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약을 투여한 시각과 용량을 기록해두면, 약을 지나치게 많이 먹이거나 적게 먹이는 위험을 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평소 어린이가 먹는 음료수, 주스, 한약, 건강보조식품 등은 처방약과 함께 먹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나 드물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약효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치료 중엔 함께 섭취해도 무방한지 소아청소년과 선생님과 상의하

시는 것이 좋습니다.

찰순가락, 일반 유리잔 등으로 의약품의 양을 측정할 경우,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양을 먹이게 될 수 있습니다. 대개 의약품 포장 용기에 전용 계량컵, 계량스푼 혹은 의약품 주입기가 동봉되어 있거나 약국에서 복약 지도 시 제공하는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세요.

일반적으로 계량컵은 약을 흘리지 않고 먹일 수 있는 어린이에게, 계량스푼은 컵으로 약을 먹을 수 없거나 흘리기 쉬운 어린이에게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계량 용기를 이용하여 약을 먹인 후에는 미

지근한 물을 소량마시게 하는 것이 좋고, 사용한 계량 용기는 깨끗한 물로 씻어낸 후 충분히 건조시켜 보관하되 수세미 등으로 힘을 가하여 닦지 않도록 합니다.

#### 약 잘 먹지 못한다면 복용 전후 차가운 것 도움

약을 잘 먹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약 복용 직전 혹은 직후에 차가운 것을 먹여줍니다. 예를 들어 과즙 슬러시, 얼음 조각 등을 약 복용 전에 소량 먹이게 되면 일시적으로 약의 쓴맛을 가볍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약을 먹은 후에는 초콜릿 시럽, 오렌지 주스, 막대사탕 등 단 것을 함께 먹여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쓴 약에는 초콜릿 시럽, 짠 약에는 오렌지 주스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가 평소 특별하게 좋아하는 맛, 예를 들어 풍선껌 맛, 체리맛, 망고맛 등이 있다면 이에 따라 달리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 약은 아이 손이 닿기 힘든 '높은 곳'에 보관

의약품을 사용한 후 항상 뚜껑을 잠그고 표시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많은 수의 어린이 의약품은 아이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맛과 색이 있으며 씹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보관 방법 중의 하나는 '높은 곳에 보관' 하는 것입니다. 상온 보관, 냉장 보관 모두 아이의 손이 닿기 힘든 높이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해열제

정상체온 유지가 아니라 힘들지 않도록 편안하게 해주는 것

해열제는 보통 체온을 1~1.5℃ 정도 낮춰줍니다. 대개 38℃가 넘으면 해열제를 먹이게 되는데, 이 정도로 체온이 올라가면 아이들이 잘 먹지 못하고 축 처져서 활동력이 떨어져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열제를 먹이는 가장 큰 목적은 열을 떨어뜨려 정상 체온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힘들지 않도록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발열은 그 자체로 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린이가 열이 있어도 잘 자고 있다면 깨워서 해열제를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미지근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아이를 닦아주는 방법을 쓰시는 부모님도 많은데, 온도가 높고 습하거나 빨리 체온을 낮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볼 수 있지만 심하게 보채거나 싫어할 경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열제를 먹었는데도 3일 이상 열이 지속

되거나 고열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특히 생후 3개월 미만 아기가 38℃ 이상일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 감기약

비슷한 증상이라고 과거 처방약 임의로 먹이면 안 돼

증상과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기침, 가래, 오한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동시에 복용하기도 합니다.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으로 구입한 감기약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복용한 경우라도 2세 미만의 연령일 경우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과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전에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먹이면 안 되고 형제, 자매의 약을 같이 나누어 먹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복용 후 남은 약은 아깝다고 오래 두지 말고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기의 합병증으로 중이염, 부비동염 등이 있으면 항생제가 처방되기도 하는데 항생제는 증상이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복용량을 줄이거나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 배탈약

설사는 약보다 수분공급이 더 중요

어린이가 배탈이 있어 설사하는 경우엔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분공급입니다. 흔히 하는 방법으로 죽이나 끓인 보리차를 먹여볼 수 있습니다. 이때 꼭 보리차일 필요는 없고 끓인 물이면 됩니다. 토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소량씩 시도하면서 손으로 배를 문질러 따뜻하게 해줍니다.

돌이 안 된 아기가 심한 설사를 하면, 경구수액제를 처방받을 때까지는 분유를 원래 농도로 무제한 주거나, 모유 수유를 하고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하되 어머니는 커피, 콜라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경구수액제를 처방받았다면 3~4시간 이상 걸쳐 마시게 합니다.

4시간이 지난 후 탈수 교정이 되면 아기는 배가 고플 것이며 이때 원래 먹던 분유를 자주 먹도록 합니다. 스포츠음료는 탈수 교정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과일주스는 설사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지 않습니다.

대개 배탈약은 가루약이 많은데 소량의 물에 개어 젓꼭지에 발라서 먹이거나 입천장에 바른 뒤 물을 먹여도 됩니다. 물 위에 뜨지 않고 완전히 개어 먹여야 하며, 대충 개어 먹이는 경우가루가 흘러 저기침이 나고 이로 인하여 구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흔한 소아 실신**

여러 연구에서는 성인이 되기 전 한 번 이상 실신을 경험한 사람이 남아의 20%, 여아의 50%까지 차지하며 1,200명 중 1명이 실신으로 병원을 찾아온다고 할 정도로 생각보다 조금 흔한 편입니다. 소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실신은 신경심장성 실신, 이전에는 보통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불리던 유형입니다.

**신경심장성 실신 - 장시간 서 있는 자세에서 주로 발생**

신경심장성 실신은 대개 만 11~13세경 사춘기 연령에서 생기고 위 연구처럼 여아에서 더 많습니다. 장시간 서있는 자세에서 주로 실신이 발생하며, 피를 보는 것, 통증, 주삿바늘, 냄새, 역겨움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신은 의식을 잃기 전에 힘이 빠지는 듯한 무력감, 어지럼, 시야 흐려짐, 두통, 구역(토할 것 같은 느낌), 발한(땀 흘림), 온기 또는 한기 등의 전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도 조절이 가능한 테이블에 누워 시행하는 기립경사 검사로 진단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신경심장성 실신은 몸에 뚜렷한 문제없이 발생하여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고 실신 시 쓰러지면서 부딪혀 생기는 외상 이외 합병증도 없어서 예후가 양호합니다.

**첫 실신에서 부정맥 확인해야해**

하지만 간혹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실신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런 전구 증상이 없거나 운동 중에 발생하거나,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여 심장성 실신으로 진단받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심질환에 대한 아이의 과거 병력이나 가족력

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첫 실신에서 심전도를 확인하여 위험한 부정맥이 있는지 확인하며, 심전도 및 혈액 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심초음파, 심장 MRI, 24시간 활동 중 심전도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긴 QT 증후군, Brugada 증후군, WPW 증후군 등 부정맥이 심장성 실신의 주요 원인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하거나 심한 경우 심장 박동조율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뇌, 척수 같은 중추신경계 질환이 실신의 원인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실신 시 동반된 증상이나 실신했을 때 모습 등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며 의심될 경우, 발작, 뇌졸중, 거미막밑 출혈 같은 중추신경계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뇌파 검사, 뇌 MRI 등의 검사를 권유합니다.

그 외에도 실신은 기침, 재채기, 배뇨, 배변, 삼키기, 운동, 스트레칭, 발살바 조작, 호흡중지 발작 같은 사소한 자극에도 발생하기도 하며 저혈당증, 빈혈, 감염 등 전신 질환이나 편두통, 약물, 공황 발작도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신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까지 여러 실신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가 실신을 할 경우 께 때까지 가능한 한 바닥에 바르게 눕혀주시고 그 모습과 의식을 잃은 기간을 잘 기억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신이 지나간 후에도 심전도를 시행하면 생명이 위험한 몇몇 부정맥이 감별 가능하니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이나 중추신경계 문제가 아닌 실신의 경우에는 유발 요인을 피하는 것이 예방법입니다. 가장 흔한 신경심장성 실신인 경우 수분과 염분(소금)을 조금 더 섭취하도록 해주시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의 실신**

**아이가 기절했어요!**

가끔 아이가 갑자기 쓰러지는 일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잠시 동안 의식을 잃고 자세를 가누지 못하는 현상을 병원에서는 실신이라고 부릅니다.

글\_ 신은정 / 소아청소년과



**소아 혈액질환**

**과거 불치병, 지금은 4명 중 3명 이상이 완치!**

소아와 청소년기에 암의 발생은 흔하지 않지만, 발생하는 경우, 급성 백혈병이 있고, 그 중에서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이 가장 많은데, 급성골수성 백혈병과의 감별이 중요하다.

글\_ 김순기 교수 / 소아청소년과



**소아 혈액질환 유형**

소아청소년 혈액종양분과는 소아와 청소년에 있어서 혈액질환 및 암을 다루는 분야이다.

혈액질환에는 혈액을 구성하는 혈구에 관련된 질환이 포함된다. 적혈구가 부족한 경우에 생기는 빈혈이 있고, 백혈구의 기능이나 수의 이상으로 생기는 백혈구 질환이 있으며, 혈소판의 부족이나 기능부족에 따라 출혈질환이 있다. 한편으로는 혈소판은 정상이더라도 혈액의 응고기전에 이상 있는 혈우병이나 폰빌레브란트 병이 여기에 포함된다.

소아와 청소년기에 암의 발생은 흔하지 않지만, 발생하는 경우, 급성 백혈병이 있고, 그 중에서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이 가장 많은데, 급성골수성 백혈병과의 감별이 중요하다. 그 외에도 뇌종양, 악성 림프종(호지킨 병 및 비호지킨 림프종)이 있고, 영유아에 잘 발생하는 신경모세포종과 빌름스 종양이 여기에 포함된다. 드물지만 횡문근육종, 악성 골종양(골종양 및 유잉육종), 망막모세포종, 생식세포 종양, 간종양 등이 있다.

**검사 및 진단**

이러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진단과정을 거친다. 일반적인 혈액검사와 방사선 검사 등이 필요하고, 때로는 골수검사, 척수검사와 조직검사가 질환에 따라 필요하다. 또한 방사선과, 진단검사 의학과, 병리과, 외과 등 다학제적 접근을 하여 진단 및 치료를 하게 된다.

**치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진이 되면 바로 치료를 하게 된다. 치료를 용이하게 하는 키모포트나 히크만카테터를 설치하기도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는 혈액종양을 담당하는 임상 의사뿐 아니라 소아외과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정자(코디네이터), 병원학교 선생님, 임상약사 등과 긴밀히 상의하여 결정한다. 그리하여 입원생활, 병동회진, 식사, 혈액채취, 병원학교 등의 생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치료는 거의 세계적으로 용인된 표준화된 치료법이 있어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다.

**초기 치료 시 부작용에 잘 대처해야**

초기 치료에 자주 만나게 되는 출혈, 감염이나 항암제 부작용에 잘 대처해야 한다. 특히 절대호중구수(ANC)가 낮을 때 발생하는 열을 잘 치료해야 하며, 질환이나 치료의 부작용으로 만나는 통증 역시 잘 대처해야 한다. 또한 항암화학요법만으로는 치료효과가 적을 경우에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환자와 적합한 골수를 찾아서 무균실에서 시행한다.

소아암 또는 소아청소년암은 과거에는 불치의 병이었으나, 이제는 완치율이 향상되어 거의 네 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완치된다. 생존율이 향상된 이유는 더욱 강력한 치료를 적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에 잘 대처하는 의료 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작용은 많이 남게 된 만큼, 이런 부작용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

인하대병원 소아과에서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진료와 치료를 행하고 있다.



## 아기 안고 수유할 때 행복과 사랑은 넘치는데, 허리가 아프다면?!



임신 동안 분비되는 '릴랙신'이라는 호르몬은 체내의 인대를 이완시켜 몸이 출산에 대비하도록 도움을 주지만 관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또한, 복부가 비대해지고 추가 체중을 지지하는 근육들의 긴장도가 증가하여 요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드물게 임신, 수유와 연관된 호르몬의 작용으로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이 수유부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알려져 있어 심한 요통이 지속된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출산 후 발생하는 요통과 육아 관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증 예방 방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한쪽으로 틀어진 자세 반복을 피해야 한다

출산 후 발생하는 요통의 상당수는 산모의 자세 이상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체내의 인대가 이완된 상태에서 아기를 향해 누워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골반과 척추가 비틀어지기 쉽다. 또한, 항상 같은 자세로 수유를 하게 될 경우 목, 허리뿐만 아니라 어깨나 손목 관절에 무리를 주기 쉽다. 따라서 좌우 근육을 최대한 대칭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많은 도움을 준다. 실제로 필자는 아이를 처음 키우면서 지속되는 요통으로 고생하여 원인을 찾아본 결과 왼손잡이인 필자가 항상 왼팔로만 아이를 안으면서 요통이 발생하였고 의식적으로 양팔로 번갈아가며 아이를 안고 나서 통증이 호전되었던 경험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반복적 손상은 오직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다른 치료로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게 되는 문제들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출산 이후 신생아를 돌보느라 정작 본인의 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해져서 지속되는 요통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있다. 글: 류달성 / 신경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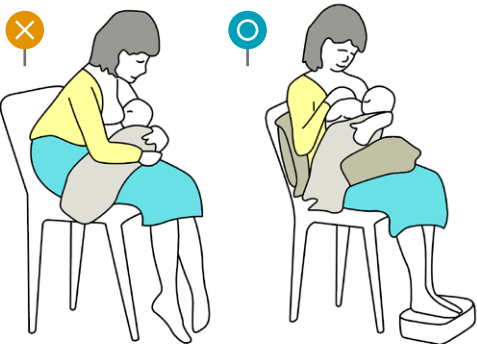
### 적절한 자세를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체구에 비하여 너무 무거운 물건을 한꺼번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물건을 들어야 할 때는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면서 들어올리도록 하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아이의 기저귀를 가는 위치가 너무 낮아서 허리가 구부정하게 유지되고 아이를 들어올릴 때 힘이 많이 들면 허리에 손상을 주기 쉽다. 또 장시간 앉거나 서는 등의 동일 자세 유지를 피해야 한다. 서있을 때에는 한쪽 발 아래에 낮은 의자나 단상을 만들어 받쳐주어야 한다. 앉아서 수유할 때에는 너무 구부정하게 앉지 않도록 하며 베개나 등받침을 이용하여 척추에 부담을 줄이되 똑바로 허리를 펴도록 해야 한다. 다리를 꼬지 않도록 하고 몸의 모든 관절들을 스트레칭하여 경직된 신체를 자주 풀어주는 것이 손상 예방에 효과적이다.

### 통증의 예방과 치료에 운동은 필수적이다

걷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당 3~5일 20~45분간 시행하는 것이 통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거나 출산 이후에 이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집안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다. 반듯하게 누운 상태에서 한쪽 또는 양쪽 무릎을 복부로 당기는 무릎-가슴 운동(knee to chest),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팔을 양옆으로 벌리고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 무릎을 반대쪽으로 돌리는 하지 회전 스트레칭(lower trunk rotation stretch), 요가의 고양이 자세 등이 통증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 항문과 골반부 근육에 힘을 주어 천천히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케겔 운동(Kegel exercise)은 언제 어떤 자세에서도 쉽게 할 수 있으며 체형교정이나 통증을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에게 흔한 요실금도 막아 줄 수 있다.

### 적절한 수유 자세



### 산후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



## 애 낳으면 다 그래? 독박육아가 부추기는 우울



자신을 닮은 고귀한 생명을 마주하는 아름다운 순간, 바로 분만의 순간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여성들이 분만 후 4~6주의 기간(산부인과에서는 이 기간을 산욕기라고 부른다)에 전에 없던 기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글: 김혜영 / 정신건강의학과

분만한 여성 중 많게는 3/4 정도가 '산후 우울감(postpartum blues 또는 baby blues)'을 경험한다. 산후 우울감은 출산 후 평균 3~5일 이내에 시작되고 불안정한 기분, 슬픔, 혼란스러움, 쉽게 눈물을 흘리는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인체 내 여성호르몬 수치의 급격한 변화, 출산과정 이 가져오는 스트레스, '엄마'라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부담감 등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산후 우울감의 경우 산모에게 적절한 교육과 감정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것 외에 전문적인 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호전된다.

### 출산 후 기분 변화가 2주 이상 지속, 산후 우울증 의심

산후우울증은 출산한 여성의 10~15%에서 발병하며, 우울한 기분, 과도한 불안, 수면 및 식욕 변화 등 주요 우울증에서 흔히 관찰되는 증상들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대개 출산 후 3~6개월 이내에 시작되고,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산모가 과거에 주요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임신기간 중 우울증이 있었던 경우, 또는 우울증, 조울증 등 기분장애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지지 체계의 부족과 같은 정서적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등에서 산후우울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일부 산후우울증 환자는 자녀의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 미칠 것 같은 두려움, 엄마로서의 부적절감 등을 호소하는데, 증상이 심할 경우 산모 자신과 영아의 건강에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특히 주의 깊은 관찰과 전문적인 치료가 시급하다.

산후 우울증은 양육 태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자녀의 애착 형성, 인지, 정서, 사회적 행동 발달 등 자녀에게도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산후우울증이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야 하며, 정확한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할 경우 산후우울증 증상은 쉽게 좋아질 수 있다.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화자되는 이유

외국의 속담 중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핵가족 시대를 넘어 1인 가구 시대를 향해 달려 가는 요즘의 세대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한 가지 사실은 한 아이가 제대로 자라려면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와 확대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산모를 위해 남편과 친정, 시댁 등 주변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육아를 도와주고 따뜻하게 정서적인 지지를 해준다면 산후우울증의 예방과 치료 모두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산후우울증의 선별검사를 위한 자가 설문지로는 아래와 같은 에딘버러 산후우울 검사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 한국어판 에딘버러 산후우울 검사

현재의 기분이 아니라, 지난 7일 동안의 기분을 가장 잘 표현한 대담에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p><b>1. 우스운 것이 눈에 잘 띄고 웃을 수 있었다.</b></p> <p><input type="checkbox"/> 0점 - 늘 하던 만큼 그럴 수 있었다.</p> <p><input type="checkbox"/> 1점 - 아주 많이는 아니다.</p> <p><input type="checkbox"/> 2점 - 약간 그러했다.</p> <p><input type="checkbox"/> 3점 - 전혀 그렇지 못했다.</p>      | <p><b>6. 처리할 일들이 쌓여만 있다.</b></p> <p><input type="checkbox"/> 0점 - 평소처럼 일을 잘 감당하였다.</p> <p><input type="checkbox"/> 1점 - 대부분 일을 잘 감당하였다.</p> <p><input type="checkbox"/> 2점 - 가끔 그러했다.</p> <p><input type="checkbox"/> 3점 - 대부분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p> |
| <p><b>2. 즐거운 기대감에 어떤 일을 손꼽아 기다렸다.</b></p> <p><input type="checkbox"/> 0점 - 예전만큼 그러했다.</p> <p><input type="checkbox"/> 1점 - 예전만큼 기대하지 않았다.</p> <p><input type="checkbox"/> 2점 - 예전에 비해 기대하지 않았다.</p> <p><input type="checkbox"/> 3점 -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p> | <p><b>7. 너무나 불안한 기분이 들어 잠을 잘 못 잤다.</b></p> <p><input type="checkbox"/> 0점 - 전혀 그렇지 않았다.</p> <p><input type="checkbox"/> 1점 - 자주 그렇지 않았다.</p> <p><input type="checkbox"/> 2점 - 가끔 그랬다.</p> <p><input type="checkbox"/> 3점 - 대부분 그랬다.</p>          |
| <p><b>3. 일이 잘못되면 필요 이상 자신을 탓해왔다.</b></p> <p><input type="checkbox"/> 0점 - 전혀 그렇지 않았다.</p> <p><input type="checkbox"/> 1점 - 그다지 그렇지 않았다.</p> <p><input type="checkbox"/> 2점 - 그런 편이었다.</p> <p><input type="checkbox"/> 3점 - 거의 항상 그랬다.</p>             | <p><b>8. 슬프거나 비참한 느낌이 들었다.</b></p> <p><input type="checkbox"/> 0점 - 전혀 그렇지 않았다.</p> <p><input type="checkbox"/> 1점 - 자주 그렇지 않았다.</p> <p><input type="checkbox"/> 2점 - 가끔 그랬다.</p> <p><input type="checkbox"/> 3점 - 대부분 그랬다.</p>                  |
| <p><b>4. 별 이유 없이 불안해지거나 걱정이 되었다.</b></p> <p><input type="checkbox"/> 0점 -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았다.</p> <p><input type="checkbox"/> 1점 - 거의 그렇지 않았다.</p> <p><input type="checkbox"/> 2점 - 예 종종 그랬다.</p> <p><input type="checkbox"/> 3점 - 예 대부분 그랬다.</p>         | <p><b>9. 너무나 불행한 기분이 들어 울었다.</b></p> <p><input type="checkbox"/> 0점 - 전혀 그렇지 않았다.</p> <p><input type="checkbox"/> 1점 - 아주 가끔 그랬다.</p> <p><input type="checkbox"/> 2점 - 자주 그랬다.</p> <p><input type="checkbox"/> 3점 - 대부분 그랬다.</p>                 |
| <p><b>5. 별 이유 없이 겁먹거나 공포에 휩싸였다.</b></p> <p><input type="checkbox"/> 0점 -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았다.</p> <p><input type="checkbox"/> 1점 - 아니오 거의 그렇지 않았다.</p> <p><input type="checkbox"/> 2점 - 가끔 그러했다.</p> <p><input type="checkbox"/> 3점 - 예 꽤 자주 그러했다.</p>     | <p><b>10. 나 자신을 해치는 생각이 들었다.</b></p> <p><input type="checkbox"/> 0점 - 전혀 그렇지 않았다.</p> <p><input type="checkbox"/> 1점 - 거의 그런 적이 없었다.</p> <p><input type="checkbox"/> 2점 - 가끔 그랬다.</p> <p><input type="checkbox"/> 3점 - 자주 그랬다.</p>               |

● 0~8점 : 정상 ● 9~12점 : 상당수준 - 경계선 ● 13점 이상 : 심각 - 치료 필요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 대한의학회





# 심부전 환자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심부전이 지속하고 심전도에서 특징적인 모습이 보인다면  
심장재동기화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고가였던 심장재동기화(CRT) 치료는 최근 국내급여기준의  
확대로 인해 많은 환자분이 혜택을 받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있다.

글\_ 백용수 교수 / 심혈관센터(심장내과)

## 심부전(Heart Failure)이란?

심부전(Heart Failure)은 심장 근육이 약화되어 건강한 심장만큼 효율적으로 혈액을 펌프질할 수 없는 심장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혈액과 산소가 충분히 빠른 속도로 신체에 공급되지 않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없을뿐더러 몸에 부종이 심해진다. 심부전이 심해지면 체액이 폐 또는 다른 신체 부위에 정체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교통 체증과 같이 울혈이 생긴다. 이러한 체액 정체는 울혈성 심부전이라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그림1).

심부전 환자는 심장 펌프 기능의 장애와 부정맥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

다. 심부전의 치료는 일차적으로 약물을 사용한다. 하지만 약물이 듣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심장재동기화 치료(CRT)를 하게 된다. 심부전 환자는 심장의 한쪽이 다른쪽보다 느리게 수축할 수 있는데 심장 재동기화 치료는 느리게 수축하는 부위를 빠르게 수축하게 해서 심장의 여러 부위에서 동시 수축을 가능케 한다. 이는 마치 무거운 짐을 끄는 당나귀에 당근이나 짐을 덜어주는 역할이 약물치료라고 한다면 심장 재동기화 치료는 당나귀의 발에 롤러스케이트를 달아 능률을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그림2). 또한, 심실빈맥과 심실세동과 같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악성 부정맥을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이 동시에 있다.

그림 1

심부전 환자에서 폐울혈 된 흉부 엑스레이 사진 (심한 심비대와 폐부종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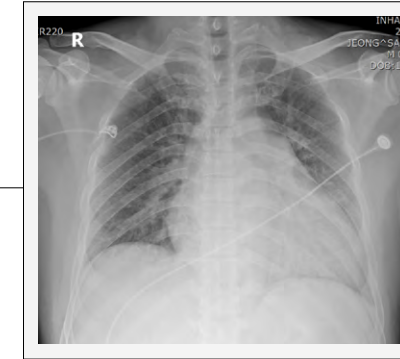


그림 2

심장재동기화 치료의 비유 (심장재동기화 치료는 당나귀의 발에 롤러스케이트를 달아 능률을 올리게 하는 비유로 설명될 수 있다)



## 심장재동기화 치료의 효과

심장재동기화 치료는 기존의 영구형 심박동기와 같이 우심방과 우심실에 조율할 수 있는 전극을 위치시키는 것에 추가로 관상동맥동(coronary sinus)을 통해 좌심실의 측벽을 조율할 수 있는 전극을 추가로 하나 삽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일정한 시간 간격을 조정하여 우심실과 좌심실이 동시에 수축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다(그림 3). 심장재동기화 치료를 통해 우심실과 좌심실의 동시수축, 이완기 총만 시간의 증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심실수축력의 호전, 심실재형성의 차단 및 역전 등의 효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심부전의 이환율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시술은 복잡하나?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인하대병원은 환자의 안전성과 만족도를 위해 장비가 갖추어진 심혈관 촬영실에서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진의 전신 마취 하에 잠든 상태에서 안전하고 통증 없이 진행되는 데 평균 약 3~4시간 가량 소요된다.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심부전이 있고 심전도에서 특징적인 모습이 보인다면 심장재동기화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이 치료가 상당히 고가의 기계여서 환자분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국내급여기준의 확대로 인해 많은 환자분들이 혜택을 받고 증가 추세에 있다. 심부전 환자에서 적절한 평가를 통해 필요한 환자에서 심장재동기화기를 삽입하여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CRT 시술 사례

백용수 교수에게 CRT 시술을 받은 백송자 환자(74세)

2002년. 계속되는 가슴이 빠근한 통증과 숨차고, 답답한 증상으로 인하대병원 심장내과 외래를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 후 '심근확장증'으로 진단 받았죠. 그 후 오랜 시간 동안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니다. 계속해서 약을 먹었지만 갈수록 더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힘들었어요. 약을 먹으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무릎과 고관절이 안 좋아 수술 받은 후로는 잘 걷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니 건강이 더 악화되었죠. 그 후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수시로 쉬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월, 심장내과 백용수 교수님께서 심장재동기화 치료와 삽입형 제세동기 기능을 결합한 기기 이식 시술을 하라고 권하셨어요. 시술이 걱정되고 겁났지만, 교수님을 믿고 시술하기로 결정했죠. 3월 11일 입원 후 시술을 받았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끝나있었죠. 시술 부위가 아프긴 했지만 이를 거라 예상해서 그런지 참을만한 아픔이었어요. 그 후로 2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 약을 먹고 있지만, 전보다 훨씬 숨차는 증상이 덜 해서 편해요. 저 스스로가 '아이고, 숨차'라는 말을 덜 하는 게 느껴져요.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진다고 하니 앞으로가 더 기대 돼요.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불안한 저를 안심시켜주고, 신뢰를 준 심장내과 백용수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갈/성/렬

헛둘! 뿡!!  
아름다운 레이스 해설하는  
눈물 많고  
승부욕 넘치는  
천상 운동선수

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올림픽을 준비하던 제갈 성렬 선수는 공포의 3코너에서 복숭아빠가 조각나는 상처를 입는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역지를 부려 출전하고 41명 중 20위권에 들었다. 남들은 금은동 메달에 기뻐할 때, 그는 올림픽 레이스를 완주한 '자신'을 많이 칭찬해 주고 싶었다고 회상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해설위원으로 돌아온 그 때문에 울고, 웃고, 헛둘을 때창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레이스를 볼 수 있었던 '우리는' 행복했다.

에디터\_ 이정희 사진\_로렘스튜디오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는 선수들의 꿈을 돕고, 함께 그 꿈을 이루는데 좋은 조력자가 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고생한 김민선 선수(의정부시청)와 함께 다시 만난 환상의 배갈 콤비

빙판 위의 오뎅이, 늦게 핀 꽃이 아름답다

“굴곡이 많은 인생이죠. 8살 때, 스피드스케이팅을 시작했지만, 이 런저런 이유로 메달권과 멀어지기 일쑤였어요. 15여 년 동안 대표 생활을 하면서 3번의 올림픽, 2번의 아시안 게임, 아니 수많은 경기에 출전했지만 꿈꿔왔던 올림픽 메달은 없어요. 하늘은 제게 올림픽 메달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찍 두각을 나타냈지만 메달운이 없었던 그에게 ‘빙판 위의 오뎅이, 늦게 핀 꽃이 아름답다’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이유라고 한다.

제갈 감독의 어머니는 ‘세 번의 올림픽 메달에 실패했지만 네가 살아가는데 더 좋은 경험이었을 거’라며 애쓴 아들의 마음을 다독인다.

꿈을 향한 무한도전과 투지에 주변에서는 박수를 쳐주었고, 그는 자신의 삶에 많은 밑거름이 되었다며 지나온 시간을 회상한다.

3초 침묵,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운 메달...

동계올림픽 스포츠 해설 방송이 하루하루 나갈 때마다 생각 이상의 반응이었다. 칭찬 전화도 오고, 시청률 1위라는 방송국 연락을 받아도 끝날 때까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단다.

“잘 되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성재(배성재 캐스터)를 불러서 안목해변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바람 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었어요. 성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무뎡뎡(?)하게 곁에 있어준 성재에게 고맙죠.”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 해설 중 종교 발언을 했던 그는 많은 질타와 탄원, 협박 전화까지 받는 등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 평창올림픽 해설을 수락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생전 아버지께서 해설하는 모습을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셨기 때

문에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실 아버지 얼굴을 생각하며 다시 잡은 마이크였다.

“에피소드요? 왜 없겠어요(하하). 해설 도중 제가 ‘하늘...’을 말하고 2,3초 정도 조용했어요. 그때 방송국도 모두 식겁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운 메달이라고 마무리했어요.”

제갈 성렬 감독, ‘조인성렬’로 탄생하다!

‘인간적인 해설이다, 중독성 있어서 하나둘을 폐창 하면서 경기를 본다’는 댓글을 볼 때 마음이 울컥해지는 그다. 감정이 폭발쳐 오르는 이유는 저 스타트 라인에 서기까지 얼마나 절절한 피와 땀으로 고생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란다. 시청률이 높을수록, 자국 올림픽이라 더 최선을 다하는 선수의 모습을 볼 때 마다 쏟아지는 눈물을 많이 참았다는 그다.

그리고 제갈 감독에게 아직도 ‘아버지’라는 단어만 나오면 가슴이 먹먹해져 통제할 수가 없단다. 애잔하고 잘하지 못한 것만 생각나고 아버지 향기가 더 그리워진다고 말하는 목소리에 질은 그리움이 묻어난다.

“소통하는 지도자, 인간적인 지도자, 존경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죠.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선수들의 꿈을 도와주며 그들과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데 좋은 조력자가 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빙판’이라는 현장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제갈 성렬 감독이다. 그래서 그는 대학 강단에 서는 꿈도 여전히 접지 않고 조금씩 걸어간다. 조금 느리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는 그만의 ‘움직임’으로...



현실과 상상의 연결

누구나 무엇이든 될 수 있고,  
갈 수 있는 세계!

Virtual Reality



인하대병원에서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상지로봇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

곧 영화 속 저승세계를 가상현실로 즐길 수 있다.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이 저승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라이드 필름으로 제작된다고 한다.

가상현실 속이라면 통증 없이 치료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글\_ 편집부

### 가상현실이란?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축한 가상공간(Virtual Environment 또는 Cyberspace) 속에서 인간이 가진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인간이 오감으로 느끼는 감각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

가상현실은 특수 헤드셋이나 주변 장치들을 이용해 인공으로 만든 가상의 세계를 실제 상황처럼 인식하고 경험하게 해 준다.

### 몬스터를 잡으러 다니는 게임 '포켓몬 고'는 증강현실

가상현실의 한 종류인 증강현실은 실제 배경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가상의 이미지를 더해 보여 준다. 화제가 되었던 '포켓몬 고' 게임은 '포켓몬'이라는 몬스터를 잡으러 다니는 게임이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몬스터들이 나타나는 곳은 화면이 아닌, 지금 내가 있는 슈퍼마켓 일 수도 있고, 우리 집 앞 놀이터, 혹은 내가 다니는 학교일 수도 있다. 가상의 콘텐츠인 몬스터가 내가 속한 현실과 합쳐진 증강현실 기술 때문이다.

### 지루하고 힘든 재활 훈련에 '재미'를!

가상현실은 헬스 케어와 융합하면서 환자 치료 효율을 높여주고 의사가 수술 전에 미리 가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연습하는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된다. 임상실습이나 치료를 실제에 가깝게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가상현실을 의료 환경에 적용하면서 VR과 의료의 융합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가상현실 치료가 활발하게 적용되는 분야는 뇌졸중·치매·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 질환으로 신체 움직임이 둔해지

는 것을 막는 재활 훈련과 사고 트라우마나 공포증, 게임·알코올 중독 등 뇌에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감정·행동을 교정하는 인지 행동 치료다.

재활 훈련은 같은 동작을 반복해 신경을 회복하고 근육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상현실은 지루하고 힘든 재활 훈련에 '재미'를 더해준다. 환자는 단순히 앞만 보고 걷는 지루한 치료가 아니라 마치 게임을 하듯 VR 숲길과 공원 화면을 보면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외롭고 지루한 재활 훈련 과정에서 팔딱거리는 물고기를 잡는다거나 하는 것이 치료라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꼭 빠질 수 있지 않을까?

### 아픈 마음도 가상현실로, 강력한 몰입 치료 효과와 부작용

모 유명 대학병원은 세계 최초의 '가상현실 인성재활 시스템'을 이용해 정신분열증, 고소공포증, 강박증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가상현실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가상현실 치료는 정신분열증의 대표적 증상인 환청과 환각 증상 개선효과를 보이며 꾸준히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치매·중독·우울증 등의 치료에 확산 되는 추세다.

### VR 길은 '이는 것'과 '걷는 것'의 차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현실 체험존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내에 위치한 도심형 가상현실 테마파크 '몬스터 VR' 몬스터 VR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형 가상현실 테마파크이다. 개장 한 달 만에 2만3천 명 정도가 방문했을 정도로 그 인기가 뜨겁다. 몬스터 VR에서는 약 40여 개의 VR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VR 카페가 보유하고 있는 약 5~10개의 콘텐츠보다 훨씬 많은 콘텐츠다. 몬스터 VR이 도심형 가상현실 테마파크라 불리는 이유도 어렵지 않게 이런 수 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 제주도 수목원 테마파크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제주 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 연동 수목원테마파크에서 국내 첫 상생 VR 콘텐츠 체험존 'PLAY BOX(플레이박스)'는 VR 어트랙션 시뮬레이터 존, 로봇 코딩 체험존, VR 무비존, 워킹 어트랙션 존 등 총 4개의 테마존으로 구성됐다. VR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VR 슈팅 게임 콘텐츠와 제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 콘텐츠는 물론 가족과 학생들이 단체로 참여할 수 있는 로봇과 드론, 그리고 블록 등으로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도 갖췄다.

### '경주 화백로컨벤션뷰로'의 밀레니엄 VR

가상세계가 현실이 되는 국내 유일 국내 최대 규모의 VR 체험장이다. 경주 최초 400평 플래그십 VR 테마파크로 세계 유일 원격대전 VR 서바이벌 게임 등 다양한 어트랙션 VR을 게임으로 체험할 수 있다.





#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내 삶의 마지막, 연명의료결정제도”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글\_ 송숙녀 간호사 / 연명의료 담당 코디네이터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하대병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 결정에 따른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고, 환자와 가족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의료진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 01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어떻게 미리 남겨놓을 수 있나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향후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며, 이미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 할지라도 작성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은 대한호스피스웰다잉협회, 인천부평구 보건소, 인천의료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인천지사입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담당 의사와 함께 상의하여 남겨 두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이를 근거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라 할지라도 작성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인하대병원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기관입니다.

### ● 연명의료 이해를 돕는 주요 용어

**말기환자란?** 암, 에이즈,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인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한 환자입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 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한 환자입니다.

## 02 연명의료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폐소생술**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추면서 온몸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는데, 이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입니다.

**혈액투석** 신장(콩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시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적인 혈관 통로를 통해서 몸속 피를 일부 뽑아 그 속의 찌꺼기를 거른 다음 깨끗해진 피를 다시 넣어주는 과정을 일정 시간 지속하는 것입니다.

**항암제투여** 암을 축소, 억제,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로, 암의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항암제는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 세포에도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위장장애, 탈모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착용**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 확보를 위해 튜브를 삽입하는 기관 내 삽관이 필요한데, 이는 환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에 진정제 및 진통제 등의 약물이 함께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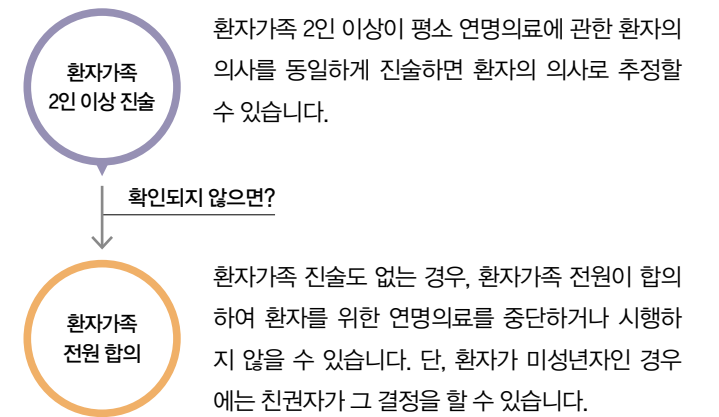
※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더라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 03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절차



**\* 환자가족이란?** 환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으로서 19세 이상 인자로, 이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 04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경우 환자가족 결정 확인 방법



자료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 |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취지 |

### 김 할머니 사건을 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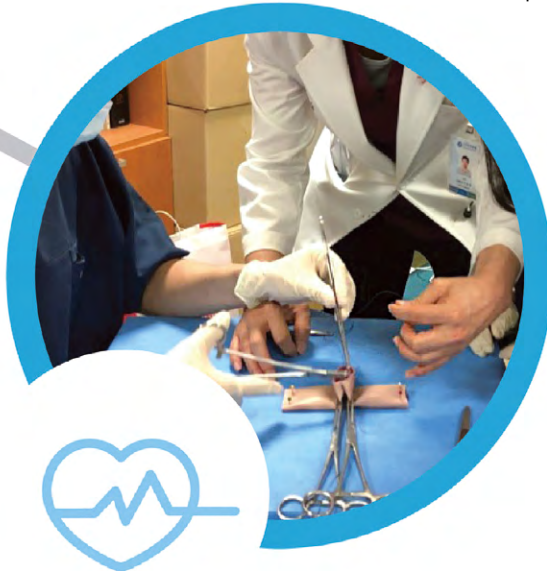
76세의 김 할머니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소위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 누워계시게 됩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할머니 사건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면서,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였고, 그에 따라 연명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비로소 마련된 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하대병원은 환자의 결정이 존중되고,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언제나 같이 돕겠습니다.

인하대병원 연명의료결정 상담 문의 : 032-890-2222





손에든 '메스'로 생명 살리는  
**수술 잘하는 외과 의사를 위해,  
필수 술기부터**

수술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외과 의사에게 '장문합술'은 필수 술기이다. 인하대병원 외과에서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18년 4월 29일 장문합술을 주제로 교육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국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 ETHICON)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글\_ 신우영 교수 / 외과

2018 / Anastomosis of bowel skill lab



**실질적, 제대로 된 교육위한 자리 마련**

외과 책임지도 전문의를 담당하고 있는 신우영 교수는 "장문합술은 외과의사의 필수 술기입니다. 현재 외과 학회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한된 시간에 많은 참석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교육을 더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했다.

**멘토 의료진과 함께 자동문합기 장문합술 실습하는 시간**

최정식 전임의는 '장문합술의 최신 지견'에 대한 교육을 맡았다. 교육 후에는 전공의 2명과 전임의 또는 교수진이 멘토가 되어 3인으로 조를 이루어 전통적인 수기에 의한 장문합술은 물론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는 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장문합술에 대한 교육과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더 많은,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할 터**

외과에서는 2014년부터 오송 코비디엔 교육센터에서 복강경 술기 교육을 시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워크샵 이외에, 송도 올림푸스 교육센터에서 복강경 술기 워크샵이 6월 9일 예정되어 있고, 하반기에 실제 동물 장기를 이용한 장문합 워크샵 또는 에너지 디바이스를 이용한 외과 수술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다.

**외과의사의 다양하고 섬세한 술기, 로봇의사가 따라올까?**

외과는 응급질환, 중증 환자 등 생명과 밀접한 영역으로 인체 장기를 다루는 의학 영역의 꽃으로 불리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성 상 수련 과정이 힘들고, 수련 시간이 부족한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인공지능 로봇의사 왓슨이 암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단순하고 자동화된 동작이라면 모를까 외과의사의 다양하고 섬세한 술기가 요구되기 때문에 '수술 잘하는 외과 의사'를 위한 인하대병원 외과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외과 전공의 대상 교육이지만, 외과에 지원예정이거나 관심이 있는 인턴 선생님 및 학생 선생님이 참석을 희망할 경우 사전 지원을 하면 참여가 가능하다(문의 : 032-890-3391/내선번호 2738).







## ‘고객을 부모님처럼 섬겨요’

우리 병원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고객을 부모님처럼 섬겨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고객섬김활동’을 진행했다.

글 김우철 교수 / 의료혁신 실장



카네이션 달아드리며,  
병원장님과 인증샷도 찰칵!~  
“많이 힘드시죠? 빨리 쾌차하세요.”  
병원장님은 할아버지에게 직원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면서 말했다.  
“아이구, 이렇게 감사할 수가... 고마워요. 아들딸한테도 못 받아보는 카네이션을 다 받아보네.”  
병상에서 힘없이 누워 계셨던 이O강(74세) 할아버지는 일어나 앉으며 병원장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다.

“네, 덕분에 병이 빨리 나을 것 같아요.”  
옆에 계셨던 할머니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거든다.  
“우리 같이 사진 한 장 찍을까요.”  
“그러면 영광이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병원장님과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전해 드리니 행복이 가득 담긴 미소로 쳐다보신다.  
할아버지는 만성 폐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다. 술하에 1남1녀의 자녀들이 있지만, 모두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입원해서도 찾아올 수 없는 형편이다. 어버이날이 되었지만, 카네이션을 드리면서 ‘건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넬 자식들을 만날 수가 없다.  
내외부 고객 1000여 명에게 드릴 카네이션을 직접 만드느라 2일 동안 많은 직원이 수고해 주었다.  
꽃을 제작하느라 손가락에 빨간 물이 들기도 하고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라는 리본과 옷핀을 카네이션에 붙이느라 손에 풀이 붙어 떨어지지 않아도 마냥 즐겁기만 했다.  
실장, 교수, 간호사, 직원이 함께 앉아 수북이 쌓여가는 카네이션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선물을 준비하는 산타클로스 마음 같았다. 마침 그 광경을 보신 병원장님은 수고한다며 커피로 마음을 대신하셨다.

**행복 뽐뽐!! 카네이션으로 병동을 채우다!**  
병원장, 부원장 등 임원진과 간호사, 서비스혁신팀원, 서비스 리더들이 아침부터 병동과 외래를 돌면서 1,000여 명의 고객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고 같이 웃고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다. 많은 환자분이 고마워하시면서 온종일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계셨다.  
우리 병원에서는 3년째 같은 행사를 하고 있다. 힘들어서 올해는 하지 말까? 하는 피가 나기도 하지만, 고마워하시는 환자분의 모습을 보면 멈출 수가 없다. 환자뿐만 아니라 직원 중 65세가 넘으신 분에게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건강을 기원한다.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 꽃이라는 데 그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우리 병원에는 60대 이상의 환자가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많은 분이 거동이 불편하여 힘들어하신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는 보호자들은 어버이날이 되어도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받으시면 더 즐겁고 고마워하신다.

서비스혁신팀 주관의 어버이날 행사로 많은 고객에게 행복을 선물해드리게 되어서 무엇보다 기쁘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객 여러분 건강하시고 빨리 쾌차하세요!”





면역력 약해지면  
바이러스 재활동으로  
유발하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

- Q** 주변에 대상포진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상포진은 왜 걸리는 걸까요?

**A** 대상포진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이며,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동일합니다. 수두에 걸리면 회복된 후에도 바이러스가 모두 제거되지 않고 우리 몸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시에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있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하여 대상포진을 유발합니다.
- Q** 대상포진 백신이 있는데, 효과나 안전성이 괜찮을까요?

**A**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접종이 허가되었으며, 주로 60세 이상에서 접종을 권장합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매우 드물지만,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심한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이상 사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려진 이상 사례로는 주사 부위 통증, 홍반, 부기, 두통 등이 있습니다.
- Q** 과거에 대상포진이 발병한 적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해도 될까요?

**A** 대상포진을 앓으셨다면, 자연면역을 획득하게 되므로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접종을 원하는 경우, 안전성을 고려하여 대상포진에서 회복되고 6~12개월 후에 접종 가능합니다.
- Q** 백신을 접종하면 대상포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나요?

**A**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완전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상포진이 의심되면 빠르게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Q** 백신을 접종하면 대상포진에 걸리더라도 후유증으로 생길 수 있는 신경통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A**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도 대상포진이 걸리거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길 수는 있지만, 백신을 맞으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덜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통증의 치료목적으로 접종할 수 없습니다. 통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Q** 백신 접종 후 의료기관에서 30분 정도 머물러야 한다는데 30분간 관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매우 드물지만, 접종 후 10~20분 이내에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급성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하므로 접종 후 약 30분 동안은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관찰하시기 권고드립니다.
- Q** 백신 접종 후 귀가했는데 이상 사례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A** 접종부위의 통증, 부종, 발진이나, 약간의 두통, 근육통, 발열, 오심과 같은 경미한 이상 사례는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정상 면역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 또는 다른 전신적인 이상사례가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합니다.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7 | 야간 032) 890-3315



시작할 때의  
정성과 마음 그대로  
**다양한 요구에  
맞춤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 등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홍은희 원장을 만났다. 홍 원장은 편안하고 친절한 검진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고객 요구에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홍은희 원장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전문 의료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는 1984년 설립되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보건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건강검진전문 의료기관이다. MRI, CT, 초음파 등의 검사를 시행하는 영상 의학센터, 내시경 센터, 진단검사 센터, 기초 검사 및 치료 검사는 물론 학생 및 단체 검진이 가능한 독립 건강검진센터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또 12명의 전문의가 분야별로 상주하고 있으며 130여 명의 전문 인력이 정확하고 신속한 검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확하고 신속한 검진을 위해 MRI(GE社의 MR Signa 1.5T), CT(Siemens社의 128채널 MDCT), 초음파(TOSHIBA社의 APLIO 300), 내시경(올림프社의 CLV-290), 혈액학·생화학 자동화장비 등 최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259명의 암 환자를 발견,  
인하대병원과 활발한 진료협력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6개 지부에서 총 4,572명의 암 환자를 발견하였고, 인천지부에서는 259명의 암 환자를 발견하여 협력병원인 인하대병원과 활발한 진료연계를 하고 있다. 홍은희 원장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객관적

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건강관리를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건강검진'이라고 전한다. "현대인들은 각종 스트레스와 과음, 과식 등 불규칙한 식습관과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질병이 늘어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1위: 암, 2위:심장질환, 3위:뇌혈관질환) 중 주요 질환들은 평소 건강생활실천과 정기검진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간, 폐 등과 같이 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 질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건강검진 밖에는 없습니다." 건강검진사업 외에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사업',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보건교육사업', 근거중심의 '조사연구사업' 등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을 새기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전 직원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으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  
인천시 남구 송의동 ☎032-8890-8700





## 인천 유일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선도병원' 지정



인하대병원은 시범사업 때부터 참여해 운영 경험 축적 및 질적 수준을 높인 실적을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선도병원'으로 지정받았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은 기존의 운영 경험을 가진 병원이, 새로이 정책을 도입하는 병원에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공단에서 선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선도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그간의 운영사례를 신규 혹은 참여 예정 의료기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현장견학 및 컨설팅 상담 업무를 담당하며 지원한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2016년 처음 선정된 이후 지속해서 선도병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 인천 최초 최신형 방사선 암 치료 선형가속기 바이탈빔 도입



인하대병원이 인천지역 최초로 최신형 방사선 암 치료 선형가속기인 바이탈빔을 도입했다. 바이탈빔은 머리, 목, 폐, 흉부, 복부, 간 등 모든 부위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치명적인 암을 치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 디지털 시스템'로 안정성이 높은 바이탈빔은 진보된 이미징 시스템과 강력한 치료 모드를 통해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며, 환자 개인 상태별 맞춤형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토모테라피 장비는 20~40분이 걸리던 치료를 2~5분 이내로 마칠 수 있어 도중에 움직임이 큰 종양을 치료하는 데 유리하다. 더불어 빠르고 편안하게 정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임상시험 및 대상자보호프로그램 운영 기관 적합 판정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과 임상시험 품질 향상을 위해 2016년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을 법제화하고, 임상시험 및 대상자보호프로그램(HRPP) 운영 기관을 인증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식약처 HRPP 운영 인증을 위해 ▲조직 및 인력 현황 ▲HRPP 운영 일반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RB) ▲시험책임자 및 시험담당자의 4개 영역을 평가한다. 인하대병원은 피험자보호센터 주관하에 식약처로부터 현장 실태조사를 받고, 'HRPP 적합판정서'를 획득하였다. 이는 고려대학교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길병원에 이어 5번째이다.

## SK와이번스 야구단, 트레이 힐만 감독과 어린이날 행사 개최



인하대병원은 SK와이번스 야구단과 2008년 이후, 팬사인회 개최 등의 이벤트를 통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감동을 선물하고 있다. 지역사회 저소득 소외계층 및 소아암, 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행복드림'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렸던 인하대병원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SK와이번스 야구단의 트레이 힐만 감독(이하 '힐만' 감독)과 함께 8층 소아병동을 방문해 환아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다. 힐만 감독은 환아들에게 준비된 선물을 나누어 주고, 사진 촬영을 진행하는 등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 환경보건센터, 환경부 평가 2위, 4년 연속 '우수', '최우수'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부가 실시한 2017년 사업성과 평가에서 우수 환경보건센터로 선정되었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환경보건법에 근거하여 전국 14개 환경보건센터를 지정, 각 센터별 연구 및 교육·홍보 분야에 대한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2008년 6월 환경부로부터 알레르기질환 분야로 지정받았으며, 2014년부터 사업성과 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4년 연속 우수 센터와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었다.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알레르기 질환 저감 및 예방관리에 앞장섰다.

##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감사 표창 받아



인하대병원은 한국에 거주하거나 환송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한국에 머무르는 미국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감사표창을 받았다. 수 년 전부터 미국인 환자들의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진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직원들의 원활한 행정 지원으로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인 환자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하여 주한미국대사관 칼 트러크 영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인하대병원 원무팀을 방문하여 감사 표창을 전달했다.

##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p>2018. 2. 23</p> <p>출연: 신경외과 박현선 교수 외 프로그램: 아리랑국제방송 (Bizsmart) 주제: 인천의 중심 병원, 인하대병원</p>	<p>2018. 2. 26</p> <p>출연: 소화기내과 김형길 교수 외 언론사: 중앙일보 주제: 환자·보호자와 소통, 암 치료 성공의 비방</p>	<p>2018. 3. 7</p> <p>출연: 이비인후과 최정석 교수 언론사: 경인일보 주제: 침상에 혹 생기는 타석증</p>	<p>2018. 3. 11</p> <p>출연: 산부인과 황성욱 교수 프로그램: 채널A &lt;신대동여지도&gt; 주제: 자궁경부암 환자 암 극복기</p>		
<p>2018. 3. 16</p> <p>출연: 피부과 변지원 교수 프로그램: KBS &lt;여유만만&gt; 주제: 불철 피부관리</p>	<p>2018. 3. 21</p> <p>출연: 이비인후과 김영효 교수 언론사: 기호일보 주제: 만성비염 내비게이션 수술</p>	<p>2018. 3. 26</p> <p>출연: 직업환경의학과 김환철 교수 프로그램: 티브로드 인천뉴스 주제: 고농도 미세먼지</p>	<p>2018. 3. 26</p> <p>출연: 안과 윤명현 전문의 프로그램: KBS &lt;생생정보&gt; 주제: 안구건조증</p>	<p>2018. 3. 27</p> <p>출연: 정신건강의학과 김혜영 교수 언론사: 인천일보 주제: 우울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p>	<p>2018. 4. 3</p> <p>출연: 직업환경의학과 임중환 교수 프로그램: KBS &lt;공감토크&gt; 주제: 최악의 미세먼지, 실태와 대책은?</p>

##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유방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방암 환자의 식이</li> <li>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림프부종 관리</li> <li>유방암 환우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li> <li>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대상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신청)</li> </ul>	6월 12일(화), 7월 11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	3층 예방센터 회의실	유방·갑상선외과센터 032-890-2560~1
대장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장암의 이해</li> <li>대장암 환자의 영양</li> </ul>	7월 24일(화) (출수달 넷째 주 화요일)	지하 2층 세미나 3실	암통합지원센터 032-890-3600, 3767, 3768
위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암의 이해</li> <li>위암 환자의 영양</li> <li>위암 수술 후 관리</li> </ul>	6월 12일(화) (찍수달 셋째 주 화요일)	장소 미정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암통합지원센터로 사전 신청 바랍니다.
암 환자 음악 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암 환자를 위한 음악요법(우쿨렐레 배우기)</li> </ul>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미정	
심근경색, 협심증 질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근경색, 협심증 질환 교육 - 교육전문간호사 옥자은</li> <li>영양교육 및 조리실습 - 교육전문영양사 전하나</li> </ul>	6월 8일(금) 오전 10시 ~ 오후 12시	송도보건지소 2층 영양실습실	예방관리센터 032-890-2142
뇌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뇌졸중 교육 - 교육전문간호사 배선정</li> <li>영양교육 및 조리실습 - 교육전문영양사 전하나</li> </ul>	7월 13일(금) 오전 10시 ~ 오후 12시	송도보건지소 2층 영양실습실	

※ 사정에 따라 교육 내용, 일정, 강사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인하대병원 진료안내

2018. 6. 1 현재

- 대표전화 1600-8114(전국)
- 외래진료예약 (032)890-2000
- 가정간호사업실 (032)890-3590
- 종합검진센터 (032)890-3331
- 종합검진플러스센터 (032)890-3300
- 암통합지원센터 (032)890-3600

전체 진료과 토요일 오전 진료합니다, 각 진료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의 사정에 따라 진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심혈관 센터 내과 (☎2200 2440)	권 준	심부전(허혈성 또는 비허혈성 심근증, 판막 질환),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질환	수, 목	월	내시경센터 (☎2540~1)	혈액종양내과 (☎2199)	이문희	암 진단, 항암 치료(유방암, 위암, 대장암, 여성암(자궁암, 난소암), 희귀암), 완화의료	수, 목	월, 목	진짜확인(+) ●심층진료 (13:00~16:30) HPCC: 이문희 임주환	
	김대희	부정맥, 실신, 심박동기, 관동맥질환	월, 수, 목	수			임주환	항암 화학요법, 종양내과(소화)기암위암, 대장암, 두경부암, 육종, 유방암, 기타 고형암의 항암화학요법, 완화의료	월, 화	월(○), 화, 수		
	우성일	심근경색, 협심증, 심혈관 중재시술	월, 화	월, 목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월, 수	수, 목		
	신성희	심장 질환, 심부전(허혈성 또는 비허혈성 심근증), 판막질환, 협심증, 심장 초음파	화, 목	수			박헌경	혈액학, 종양학, 완화의료	목, 금	화, 금		
	박상돈	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대동맥질환, 고혈압	월, 수	수, 금			HPCC	홍스파인소화외과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권성우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관상동맥질환 및 말초동맥질환 중재시술	금	화, 목			이진수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목	월		
	백용수	부정맥(부정맥, 빈맥, 서맥, 심방세동, 돌연심장마비, 실신, 심박동기, 제세동기, 부정맥 전극도자질세술, 심장박동기, 제세동기, 심장재동기 치료	화, 수	화, 금			백지현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금	화, 수		
		심장질환, 협관질환, 대동맥질환	화	화			권혜윤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월, 수(2,4주)	목		
	홍부 외과	백완기	심장질환, 협관질환, 대동맥질환	화			화	임재형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화, 수(1,3,5주)		목
		김정택	연구년(2018, 4, 1 ~ 2018, 9, 30)					박 인	관절염, 골다공증, 루프스	화, 수		월
소화기내과 (☎2224)	신용운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월, 목	목	◆간암클리닉 : 간암환자만	류마티스내과 (☎2210~1)	권성렬	관절염, 혈관염, 베체트, 레이노	월, 목, 금	화, 목(●)	●심층진료 (13:00~14:00)	
	김형길	소화관위(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수	월, 수			임미진	관절질환, 자기면역질환(관절염, 통풍, 혈관염)	월, 목	월, 수, 금		
	이도형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화			정경희	관절염, 자기면역질환(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통풍, 전신성 강직증)	화, 수, 금	화, 목		
	권계숙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역류성 식도질환, 변비	수, 금	화			이승운	관절염	목, 금	화, 목		
	이진우	간암, 간경변증, 간염, 간아식, 지방간 클리닉	화, 수, 목(●)				김철우	임상약리/약동분석	수, 금	수, 금		
	정 석	최장	담도 질환,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 담석질환, 췌장염	월, 금			화	이정성	ADHD, 틱장애, 학습·주의력·언어	월, 화		화, 목
		방병욱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월, 화			금	배재남	노년기 우울증, 기억장애, 치매, 노년기 정신장애	화, 수, 목		월, 목(▲)
	진영우	간암, 만성 B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알코올성 간질환, 지방간	월	화, 수, 금			김현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월, 수, 목(★)	수, 목		
		박진석	소화관, 간, 담도, 췌장질환	화, 목			월	김혜영	기분장애(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정신질환(조진단 및 관련), 자살예방	수, 금		월, 목
	호흡기내과 (☎2216)	이홍렬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화, 목, (금■)			월, 금	■폐암센터	소아청소년과 (☎2260)	김순희		혈액종양, 내분비, 비만, 성장
곽승민		연구년(2018, 5, 1 ~ 2018, 7, 31)			김은진	ADHD, 틱장애, 학습·주의력·언어	월, 화			화, 목		
폐암 호흡기 센터 내과 (☎3890)	류정선	폐암, 폐결절, 항암화학치료, 맞춤형, 흉악질환	월, (화■), (목■)	(월■)	배재남	노년기 우울증, 기억장애, 치매, 노년기 정신장애	화, 수, 목	월, 목(▲)				
	남해성	폐종양, 폐결절, 폐암 조기검진	수	화, (수■), 목	김현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월, 수, 목(★)	수, 목				
홍부외과	김정수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금■)	수	양아람	자신감, 성숙, 소아만, 당뇨, 갑상선, 내분비질환, 신장질환	화	화, 수(■), 목				
	이홍렬	폐종양	금	금	김은진	ADHD, 틱장애, 학습·주의력·언어	월, 화	화, 목				
당뇨내분비센터 (☎3360, 2215)	남문석	연구년(2018, 5, 1 ~ 2018, 7, 31)			◆심혈관센터 진료	신경외과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월, 금	수	*진료시간 14:30~16:30 △운동장애클리닉 ●두통클리닉 ★수면클리닉	
	홍성빈	갑상선, 골다공증, 부갑상선성질환, 내분비회귀질환	목, 금	월, 수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월, 수(◆), 금	수		
비만 외과 센터 (☎3380, 2215)	허윤석	비만·당뇨·위수술(고도비만수술)	화		◆심혈관센터 진료	신경외과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목	수	*진료시간 14:00~16:00	
	이지은	소아비만상담, 종합검사, 식이요법, 운동요법	금*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월, 수(◆), 금	수		
신장내과 (☎2229)	이연지	항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월, 목	목	◆심혈관센터 진료	신경외과	심유식	해위연수(2017, 9, 1 ~ 2018, 8, 31)	월, 목	목	*진료시간 14:00~16:00	
	오정민	비만	목	목			최석진	근신경계질환, 말초신경질환, 파킨슨병	수	화, 수, 금		
신장내과 클리닉 (KTC) 외과	김문재	신장질환,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화, 목	월	◆심혈관센터 진료	신경외과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월, 금	수	*진료시간 14:00~16:00	
	이승우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혈액투석, 복막투석	금	화, 수, 목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목	수		
복막투석클리닉 (PDC) (☎2535)	송준호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혈액투석, 복막투석	월, 화, 수	목	◆심혈관센터 진료	신경외과	심유식	해위연수(2017, 9, 1 ~ 2018, 8, 31)	금	금	*진료시간 14:00~16:00	
	황선덕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목, 금	목			최석진	근신경계질환, 말초신경질환, 파킨슨병	수	화, 수, 금		
신장이식 환선덕 클리닉 (KTC) 외과	김문재	신장이식	수		◆심혈관센터 진료	신경외과	이승우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진료시간 14:00~16:00	
	박근영	신장이식	금	화			최석진	근신경계질환, 말초신경질환, 파킨슨병	수	화, 수, 금		
복막투석클리닉 (PDC) (☎2535)	김문재	투석치료(혈액, 복막투석)	월		◆심혈관센터 진료	신경외과	김창환	근골격계통증(요통, 오십견, 말초신경병변)	화, 수	화(○), 수(○), 목	*진료시간 14:00~16:00	
	이승우	투석치료(혈액, 복막투석)	목				김명옥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목, 금(■)	월, 화(■), 목(○)		
환선덕 클리닉 (KTC) 외과	송준호	투석치료(혈액, 복막투석)	수		◆심혈관센터 진료	신경외과	좌경림	심장재활, 호흡재활, 뇌재활, 인지재활, 인지평가	월(○), 화(★), 수(★), 금(○)	월(★), 금(★)	*진료시간 14:00~16:00	
	황선덕	투석치료(혈액, 복막투석)	화				일 반	일반재활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심뇌재활센터 (☎2480)	정한영	뇌졸중(중풍),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월, 금	수	◆간진센터 △비만센터(목요일 10시부터) 일반 및 비만센터 동시진료	성형외과 (☎3870)	황 건	얼굴외상 및 골절, 흉터 성형술	화, 목	화	2층 혈관외과
	좌경림	심장재활, 호흡재활, 뇌재활, 인지재활, 재활평가, 재활교육, 재활상담, 재활연구	화, 수	월, 금			기세취	피부성형, 유방재건, 선천기형소분, 고 미세혈관 이용환수지혈, 조직재건성형, 문통, 당비, 미용성형(리프팅, 레이저 보톡스)	월, 수	목	
가정의학과 (☎2240)	최지호	평생 건강관리, 금연	월, 화, 목	월(○), 수(○), 금	◆간진센터 △비만센터(목요일 10시부터) 일반 및 비만센터 동시진료	산부인과 (☎2270)	이상환	피부종양, 필러, 보톡스, 레이저, 지혈흡입, 수지절합 및 재건, 하지재건, 미용성형수술, 당뇨보, 육창	금	월, 수	2층 혈관외과
	이연지	항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월(○), 수, 목(○), 금	목(△)			이병희	종양학, 불임, 폐경기	수, 목, 금	월	
외 과 (☎2250)	조세욱	간장질환, 노인약학노인 만성통증, 노인 약물정리	화(◆), 목(◆)	화(◆), 목(◆)	◆간진센터 △비만센터(목요일 10시부터) 일반 및 비만센터 동시진료	안과 (☎2400)	송은섭	부인과종양	월, 수	수, 금	2층 혈관외과
	오정민	일반진료	목	목			황성욱	종양학, 복강경	월, 화	화, 목	
유방 갑상선 외과 센터 (☎2660~1)	김세중	유방, 내분비외과	수, 목	월	◆간진센터 △비만센터(목요일 10시부터) 일반 및 비만센터 동시진료	안과 (☎2400)	최수란	고위험임신, 정밀초음파	화(□), 목	월, 화	2층 혈관외과
	이건영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문연성	망막, 유리체, 포도막	월, 목	화	
정신건강의학과 (☎3880)	허윤석	위암, 고도비만수술, 소화성궤양, 기질종양	화(★)	화, 목	◆간진센터 △비만센터(목요일 10시부터) 일반 및 비만센터 동시진료	안과 (☎2400)	진희승	망막, 유리체, 백내장	수	월, 목	2층 혈관외과
	최선근	소화기외과, 대장결장암, 직장암, 항문암, 복강경 대장결장세, 치질, 치루, 치열 등 대장항문질환	월, 목, 금	화			강성모	소아안과, 성형안과, 사시, 약시	월, 수	목	
유방 갑상선 외과 센터 (☎2660~1)	박성빈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일반외과	화(★)	화, 목	◆간진센터 △비만센터(목요일 10시부터) 일반 및 비만센터 동시진료	안과 (☎2400)	김나라	녹내장, 백내장	목, 금	화	2층 혈관외과
	안종혁	유방, 내분비외과	목, 금	화, 목			정지원	백내장, 각막, 안구건조증, 렌즈삽입술	화	수, 금	
정신건강의학과 (☎3880)	이재홍	혈관이식외과, 일반외과	수, 목*	금	◆간진센터 △비만센터(목요일 10시부터) 일반 및 비만센터 동시진료	안과 (☎2400)	윤명현	망막, 유리체	수, 금	수, 금	2층 혈관외과
	최정식	간담도외과, 일반외과	금	금			김현지	레이저클리닉	월	수, 금	
정신건강의학과 (☎3880)	김현형	유방, 내분비외과	화(♥), 금(♥)	화, 목	◆간진센터 △비만센터(목요일 10시부터) 일반 및 비만센터 동시진료	안과 (☎2400)	김규성	비교, 알레르기성 비염, 부비동염	수, 목	월(○), 수(○)	2층 혈관외과
	김현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수				김영효	알레르기비염(코골기 수면무호흡)비중추축종소아비만외과	월, 수, 목	화, 목	
정신건강의학과 (☎3880)	김현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수		◆간진센터 △비만센터(목요일 10시부터) 일반 및 비만센터 동시진료	안과 (☎2400)	최정석	무통종편도수술, 소아아비안후, 갑상선두경부종양	월, 화(○)	화, 목	2층 혈관외과
	김현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수				김현지	어지럼, 난청, 중이염, 이명, 보청기	화, 금	월, 금(★)	
정신건강의학과 (☎3880)	김현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수		◆간진센터 △비만센터(목요일 10시부터) 일반 및 비만센터 동시진료	안과 (☎2400)	김지원	피터판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아비안후,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턱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연하장애	화, 목, 금	금	2층 혈관외과
	김현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수				김지원	피터판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아비안후,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턱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연하장애	화, 목, 금	금	
정신건강의학과 (☎3880)	김현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수		◆간진센터 △비만센터(목요일 10시부터) 일반 및 비만센터 동시진료	안과 (☎2400)	김지원	피터판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아비안후,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턱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연하장애	화, 목, 금	금	2층 혈관외과
	김현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수				김지원	피터판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아비안후,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턱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연하장애	화, 목, 금	금	
정신건강의학과 (☎3880)	김현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수		◆간진센터 △비만센터(목요일 10시부터) 일반 및 비만센터 동시진료	안과 (☎2400)	김지원	피터판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아비안후,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턱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연하장애	화, 목, 금	금	2층 혈관외과
	김현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수				김지원	피터판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아비안후,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턱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연하장애	화, 목, 금	금	
정신건강의학과 (☎3880)	김현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수		◆간진센터 △비만센터(목요일 10시부터) 일반 및 비만센터 동시진료	안과 (☎2400)	김지원	피터판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아비안후,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턱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연하장애	화, 목, 금	금	2층 혈관외과
	김현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수				김지원	피터판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아비안후,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턱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연하장애	화, 목, 금	금	
정신건강의학과 (☎3880)	김현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수		◆간진센터 △비만센터(목요일 10시부터) 일반 및 비만센터 동시진료	안과 (☎2400)	김지원	피터판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아비안후,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턱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연하장애	화, 목, 금	금	2층 혈관외과
	김현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수				김지원	피터판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아비안후,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턱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연하장애	화, 목, 금	금	
정신건강의학과 (☎3880)	김현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수		◆간진센터 △비만센터(목요일 10시부터) 일반 및 비만센터 동시진료	안과 (☎2400)	김지원	피터판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아비안후,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턱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연하장애	화, 목, 금	금	2층 혈관외과
	김현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수				김지원	피터판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아비안후,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턱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연하장애	화, 목, 금	금	
정신건강의학과 (☎3880)	김현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수		◆간진센터 △비만센터(목요일 10시부터) 일반 및 비만센터 동시진료	안과 (☎2400)	김지원	피터판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아비안후,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턱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연하장애	화, 목, 금	금	2층 혈관외과
	김현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수				김지원	피터판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아비안후,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턱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연하장애	화, 목, 금	금	
정신건강의학과 (☎3880)	김현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수		◆간진센터 △비만센터(목요일 10시부터) 일반 및 비만센터 동시진료	안과 (☎2400)	김지원	피터판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아비안후,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턱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연하장애	화, 목, 금	금	2층 혈관외과
	김현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수				김지원	피터판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아비안후,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턱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연하장애	화, 목, 금	금	
정신건강의학과 (☎3880)	김현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수		◆간진센터 △비만센터(목요일 10시부터) 일반 및 비만센터 동시진료	안과 (☎2400)	김지원	피터판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아비안후,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턱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연하장애	화, 목, 금	금	2층 혈관외과
	김현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수				김지원	피터판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아비안후, 갑상선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턱선 질환, 후두 및 음성질환, 연하장애	화, 목, 금	금	
정신건강의학과 (☎3880)	김현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수		◆간진센터 △비만센터(목요일 10시부터) 일반 및 비만센터 동시진료	안과 (☎2400)	김지원	피터판도수술(무통 편도수술), 소아 아비안후, 갑상			



암통합지원센터: (032)890-3600, 3767, 3768

★ : 사이버나이프 □ : 유방·갑상선외과센터 ■ : 폐암센터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위암, 대장암, 위· 대장질환	월, 수*	목	*08:30~09:30	갑상선암	내분비내과	남문석	연구년(2018. 5. 1~2018. 7. 31)			암 다학제 통합진료 : 화, 수요일 오후
		김형길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수, 금*	월, 수	서비스진료			홍성빈	갑상선, 내분비, 골다공증, 당뇨병	목, 금	월, 수	
	외과	권계숙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김소현	갑상선, 당뇨병, 내분비, 비만	월, 수, 금	화		
		방병욱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월, 화	금	암 다학제 통합진료 : 목요일 오후		외과	김세중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유방	수, 금	월, 수*	*13:30~15:30 서비스진료
이문희	위암, 소화기외과	월, 목	월		허민희	유방외과, 갑상선 내분비외과	월, 화, 목		목*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이문희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이비인후과	최정석	무통중편도수술, 소아이비인후과, 갑상선, 두경부종양, 후두 및 음성, 침샘 및 구강질환	월	화, 목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현인영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해외연수(2018. 2. 28)		
		김현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김현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대장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대장암, 위암, 위· 대장질환	월, 수*, 목	목	*08:30~09:30	유방암	외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13:30~15:30 서비스진료 암 다학제 통합진료 : 화, 수요일 오후
		김형길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수, 금*	월, 수	서비스진료			김세중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수*		
	외과	권계숙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허민희	유방외과, 갑상선 내분비외과	(월, 화, 목, 금)	목*		
		방병욱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월, 화	금	암 다학제 통합진료 : 목요일 오후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이문희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종양내과	최신근	대장암(결장암, 직장암, 횡문암), 소화기외과, 대장항문	월, 목, 금			김현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방사선종양학과	이문희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부인암	산부인과	이병익	종양학, 불임, 폐경기	수, 목, 금	월	
임주한		종양학, 혈액학	월, 화	화, 수		송은섭			부인과종양	월, 수	수, 금		
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진우	간암, 클리닉, 간염, 간경변	화, 수, 목	목(▲)	▲간암클리닉	비뇨기암	비뇨의학과	박원희	종양, 전립선질환, 요실금	화, 목		암 다학제 통합진료 : 월 오후
		진영주	간암, 만성간염, 알코올성간질환, 지방간	월	화, 수, 금				윤상민	종양, 결석, 신이식	월	월, 목	
	외과	안승익	췌장암, 담도암, 간담체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암 다학제 통합진료 : 금요일 오후	종양내과	이문희	이택	전립선, 종양, 결석	금	화, 목	
		이건영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임주한	종양학, 혈액학	월, 화	화, 수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현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김현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두경부암	이비인후과	최정석	두경부종양, 무통중편도수술, 소아이비인후과, 갑상선 후두 및 음성, 침샘 및 구강질환	월	화, 목		
김현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종양내과			임주한	종양학, 혈액학	월, 화	화, 수	암 다학제 통합진료 : 목요일 오후	
췌·담도 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돈행	담도, 췌장질환, 위· 대장내시경	화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정 석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 췌장· 담도질환, 담석질환, 췌장염	월, 금	화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외과	안승익	췌장암, 담도암, 간담체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암 다학제 통합진료 : 금요일 오후	정신건강의학과 클리닉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수*□)		*13:30~15:30 유방·갑상선외과센터 진료	
		이건영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임파부종클리닉 피부암	피부과	김명옥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목	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최광성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조갑질환, 탈모			월, 화, 금	목		
	김현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신정현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색소질환, 피부미용	수, 금	월(1,3,5주), 화	( ) : 주별 진료			
폐암	호흡기내과	이홍렬	폐종양,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금			종양내과	이문희	이문희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곽승민	연구년(2018. 5. 1~2018. 7. 31)						임주한	종양학, 혈액학	월, 화	화, 수	
	외과	류정선	폐종양,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화, 목	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남해성	폐종양, 폐결절, 폐암 조기검진	수, 금	수, 금			김현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흉부외과	윤용한	폐암, 식도암	화, 목		암 다학제 통합진료 : 화요일 오후	뇌종양	신경외과	박현선	뇌종양(사이버나이프), 뇌암, 전이성종양, 뇌동맥류, 안면경련, 경동맥질환,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월, 화, (수★), 목		▲뇌종양, 안면경련증, 삼차신경클리닉 ★사이버나이프	
	김영삼	폐암, 식도암, 흉선암	수	금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흉부 관련암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월, 수	수, 목		척추종양	신경외과	윤승환	척추종양(사이버나이프),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화, 목	화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김현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혈액암 및 골육종	혈액내과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월, 수	수, 목		연부육종 및 골육종	정형외과	강준순	골종양, 인공관절성형술(고관절, 슬관절), 관절염	월, 수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이동주	종양, 상지, 수부, 관절염			목, 금	월	
소아암	소아청소년과 방사선종양학과	김순기	혈액, 종양, 내분비, 비만, 성장	화, 금	월, 수		종양내과	임주한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월, 수	수, 목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우철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현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김현정	해외연수(2017. 10. 30 ~ 2018. 10. 29)					



## 인하대병원의 특별한 '내일'을 만드는 가치기부

“인하대병원의 발전을 기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해주신 금액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병원 이용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 후원방법 |

- ① 약정서 작성 : 방문,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연락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납부방법 : 일시납 혹은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입금 : 하나은행 748-910002-39804 (예금주 : 인하대병원)
  - ▶ 자동이체(CMS) :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서비스입니다(정기출금일 : 15일, 25일).

- ▶ 급여공제 :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교직원에 한함).
  - ▶ 방문납부 : 인하대병원 정석빌딩 B동 802호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사무국
  - ▶ 문의사항 : 궁금하신 내용은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EL : 032)890-3391 FAX : 032)890-3061 e-mail : hc@inhauh.com
- 인하대병원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사무국**





격월로 발간되던 병원보 소식지 '인하대병원'이  
계절 입은 계간지로 새롭게 찾아옵니다!

---

인하대병원보는 인천 최초의 대학병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병원 창업 이념에 맞춰  
부족했던 환자와 의사 간 작은 소통의 창구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진료실에서 미처 나누지 못한 건강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의료진이 소개하는 의료정보와  
환자의 감사편지, 여행정보, 인터뷰, 병원의 뉴스를 깊이 있게 담아냈습니다.

다음호부터는 더욱 알찬 건강정보와 다양한 볼거리를 담은 계절 입은 병원보  
계간지 '인하대병원'으로 찾아뵙겠습니다.